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연구책임자 : 이 병 희

사단법인 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연구요약 이 글은 다문화사회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해결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우리의 다문화 정책이 작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감상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즉흥적인 다문화정책은 성공을 거두기는 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정책결정자와 참여단체와 시민이 다문화사회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문화사회이론을 개술적으로 설명하고 요약하였다. 다문화사회를 조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문화,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약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정책의 이해, 판단, 비판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문화융합모델, 문화동화모델, 문화변용모델, 문화변형모델, 문화공존모델과 같은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타입과 다문화주의 은유모델을 소개하였다.

다문화주의에 관련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을 이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사회 성원이 지녀야하며 다문화능력이 없다면 다문화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이 왕성한 다문화인이 없는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헛구호로 끝날 수 있다.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문화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끝없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면서, 다문화사회 모델의 실현을 막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것은 다문화정책의 바탕을 이루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민주주의의 촉진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알 수 있는 세계는 한 관점에서 보면 불완전하며 한 번에 모든 관점에서 보면 일관성이 없고, 특히 아무런 관점에서도 보지 않으면 공허하다."

_ Richard A. Sweder _1)

^{1) &}quot;the knowable world is incomplete if seen from any one point of view, incoherent if seen from all points of view at once, and empty if seen from nowhere in particular (Richard A. Schweder)" Stawomir Magala, Cross Cultural Competence, New York: Routledge, 2005, p. 1, 에서 제인용

차 례

| 론1 |
|---|
| |
| |
| 화와 다문화4 |
| 문화의 기본개념4 |
| 가. 사회(society) |
| 나. 문화(culture)의 정의5 |
| 다. 문화의 구성요소 |
| 라. 이상형 문화와 현실형 문화15 |
| 마.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외국인혐오증(xenophobia), 문화상 |
| 대성(cultural relativity)16 |
| 단일문화(monocultural) 사회에서 다문화(multicultural) 사회로의 변화 21 |
| 가. 배경: 국제이주21 |
| 나.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23 |
| 민족집단(ethnic groups)과 다문화사회의 의의,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 ··24 |
| 가. 민족집단24 |
| 나. 다문화사회의 의의25 |
| 다.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다문화사회28 |
| 가족 패턴(ethnic family patterns)의 변화: 다문화가족과 쟁점30 |
| |

| Ш. | 다문화 사회의 문제35 | |
|-----|---|--|
| 1 | . 배경35 | |
| 2 | . 국제이주자의 희망과 현실 그리고 반응 ·······36 | |
| | 가. 이주자의 희망과 목적36 | |
| | 나. 현실39 | |
| | 다. 문화이론45 | |
| | 라. 편견과 차별의 원천47 | |
| | 마. 편견과 차별의 결과50 | |
| | | |
| | | |
| IV. | 1. 배경 35 2. 국제이주자의 희망과 현실 그리고 반응 36 가. 이주자의 희망과 목적 39 다. 편설 45 라. 편견과 차별의 원천 47 마. 편견과 차별의 결과 50 7.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54 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인간적 다양성 54 나. 정의 55 2.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타입(ideal types of multiculturalism) 58 가. 문화 동화(assimilation) 모델 59 나. 문화 융합모델(cultural amalgamation model) 63 다. 문화변용모델(문화이식모델, acculturation model) 64 라. 문화변형(문화이식, transculturation)모델 68 마. 문화공존모델(coexitence model, 문화적 다원주의 모델) 69 | |
| 1 |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54 | |
| | 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인간적 다양성54 | |
| | 나. 정의55 | |
| 2 | 2.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타입(ideal types of multiculturalism) ·············58 | |
| | 가. 문화 동화(assimilation) 모델59 | |
| | 나. 문화 융합모델(cultural amalgamation model) ······63 | |
| | 다. 문화변용모델(문화이식모델, acculturation model)64 | |
| | 라. 문화변형(문화이식, transculturation)모델68 | |
| | 마. 문화공존모델(coexitence model, 문화적 다원주의 모델)69 | |
| | 바. 다문화주의 은유모델(metaphor model) ·······71 | |
| 3 | 5. 다문화주의 : 비판76 | |
| | 가. 다문화주의 비판76 | |
| | 나. 다문화주의의 부정적 결과78 | |

| V. 마무리: 이문화(異义化) 이해 대저능덕과 나문화성책80 |
|---|
| 1.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cultural competency) : 정의와 의의81 |
| 2.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의 필요성83 |
| 가.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 모델83 |
| 나. 다문화인(multicultural man) ······97 |
| 다.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 자문화중심주의를98 |
| 라. 다문화 민주주의와 다문화정책102 |
| |
| |
| ■ 참고문헌 ···································· |

표 차 례

| <丑 II-1 | > 상이한 | 문화와 | 생활방식에 | 대한 궁 | 정적· | 부정적 | 태도의 | 비율 | · 19 |
|---------|---------|--------|--------|--------|--------|-------|-----|---|-------|
| <丑 II-2 | 2> 지역에 | 따른 국 | 제이주자의 | 수(백만) | , 1970 | ~ 200 | 5 | | . 22 |
| | | | | | | | | | |
| <丑 III- | 1>머트의 | 평경과 2 | 차별 | | | | | | ·· 44 |
| 111 | 1, 15,1 | | 1.5 | | | | | | |
| | | | | | | | | | |
| <丑 IV | 1> 문화변 | l용에 관i | 련된 주요한 | : 2 가지 | 질문 | ••••• | | • | ·· 67 |

그 림 차 례

| [그림 | V-1] | 이문화 | 이해 | 대처능력의 | 연속체 | 87 | 7 |
|-----|------|-----|------|-------|-----|----|---|
| | | | | | | | |
| [그림 | V-2] | 부모공 | 경의 1 | 태도 | | 91 | ı |

I. 서론

세계화와 더불어, 국제이주가 증가하고 국제인구이동은 국제 상호의존과 상호취약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국내인구의 구성에서 이주 자가 점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기를 들면 미국은 전체 인구에 서 이민자가 13%를 점하고 있으며, 독일인구 8200 만명 가운데 약 1600 만 명이 이주자이다.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외국 태생 인구는 전체인 구의 약 7.5%에 달하고 있다.

서구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에서 이민자 혹은 외국인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점하는 비중은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이민자 혹은 외국인 거주인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6년 국내거주외국인은 약 53만 6627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약 110만 6884명으로 그 수가 두 배 증가하여 한국 인구의 2.2%를 점하였다. 여기에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수도 2009년에는 15만 명을 넘어 서고 있다.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더한 결혼이민인구는 한국 총인구에 대비하여 2010년에는 0.63%이나 2020년에는 1.51%, 2050년에는 5.1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다문화사회는 사회를 이해하는 주요한 핵심이 되고 있다.

사회가 다문화되면 될수록 민족간 긴장과 갈등이라는 사회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정부, 학교, 사회단체, NGO, IGO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다문화문제를 둘러싸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 신부 피살 사건(2010년 7월 8일)과 관련하여,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한 관용이 살아 있을 때 국운이 상승한다고 하면서 다문화시대를 맞아 넓은 마음을 지닐 것

²⁾ 조선일보 2010년 7월 24일.

을 당부하였다.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장기적으로 우리 문화를 다채롭게 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결론이주여성의 자녀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한국어 모두를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한다고 하였다.3) 이 같은 관점은 인종집단수준에서 보면, 양문화적(bicultural)이란 용어를 적용할 수 있다. 자녀는 몽골계 한국인, 베트남계 한국인, 중국계 한국인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개인은 "중재적 인물(meditating persons)"로4) 볼 수 있다. 이들은 두 인종준거집단 성원이라는 점에 의거하여, 두 집단을 연결하거나 중개역할을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동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증가에는 남동아시아계 오스트레일리아 시민이 기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우리 사회에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사회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여 발전의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보기를 들면 미국 경제성장의 역사는 많은 점에서 이민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철강왕 카네기(Andrew Carnegie), 부시(Busch, 맥주), 골드윈(Samuel Goldwyn, 영화), 루빈스타인(Helen Rubinstein, 화장품)은 모두 이민자이며, 코닥(Kodak), 아틀랜틱 레코드(Atlantic Records), 알시에이(RCA), 엔비시(NBC), 구글(google), 인텔(Intel), 핫메일(Hotmail), 선 마이크로소프트(Sun Microsoft), 야후(Yahoo), 이베이(ebay)는 미국 이민자에 의해 창건되었거나 미국 이민자와 공동창건된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미국 44대 대통령 오바마도 다문화적 배경을지나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미국 캔자스 출신이고 아버지는 케냐출신이고 그의 계부는 인도네시아 출신이다.

다른 한편,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은 독일은 서독과 동독간의 통일은 거

³⁾ YTN, 2010년 7월 26일, 조선일조 2010년 7월 10일.

⁴⁾ Stephen, Bochner ed., The Meditating Person, Boston: G. K. Hall and Co., 1981.

의 완성되었으나, 독일 다문화사회의 진정한 통합이 독일통일이후의 과제라고 하였다. 독일 수상 메르켈은 "다문화사회를 세우고 함께 살면서 서로를즐길 수 있는 어프로치는 완전히 실패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비독일어 사용이민자가 독일에 큰 해(범죄)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독일에서는 상이한 문화사이의 통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론 조사에따르면 응답자의 31% 이상이 독일이 외국인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다고 답하였다.5)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 있으며, 다문화사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다양한 수준에서 동원하고 있다. '왜 다문화사회가 나타나는가?',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등장하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사회는 무엇인가?'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답은 어렵고 논쟁적 문제를 다시 만들어 내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명암이 바뀔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글은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다문화사회의 본질과 범위 그리고 문제해결 책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실 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감상적이거나 정치적인 혹은 즉흥적 인 다문화정책은 성공을 거두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다문화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정책결정자와 참여단체, 시민이 다문화 사회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도구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다문화사회이론을 개술적으로 설명하고 요약하였다. 다문화사회를 조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⁵⁾ BBC, 2010년 10월 17일.

II. 문화와 다문화

1. 문화의 기본개념

가. 사회(society)

사회란 사회관계와 사회상호작용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 집단을 의미하며 꽤 자족적이며 폐쇄적인 체계로 구성된다. 자족적이며 폐쇄적이란 의미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대부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의 특성은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는 사회적 경계를 지니며 이는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종종 지리적 경계에 의하여 다른 사회집단성원과 자신의 사회집단성원을 분리할 수 있다. 사회는 자율적인 단일체로 구성되고 있으며 다른 사회와의 차이에 의하여 정의된다.

둘째,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가 있다. 사회네트워크란 개인 혹은 집단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사회에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도움과 지원을 받는 사회네트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인접성과 접촉의 빈도에 따라 친구관계, 친척관계, 동료관계를 발전시키며, 공동체 문제와 공동체 참여에 관심을 지닌다. 이 같은 관계에 따라 사회는 다양한 사회네트워크를 보여준다. 이 같은 사회네트워크는 각 사회의 영토적 범위 안에서 나타난다.

셋째, 사회 성원이다. 사회성원은 사회의 많은 부문을 의미하며 개인 혹은

집단으로 구성된다. 보기를 들면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 국가, 도시, 사회단체, 문화단체 등이 있다. 사회성원은 사회 밖의 성원보다 서로 더 큰 영향을 주고 받는데, 인종, 민족, 경제, 정치, 계급, 인종, 젠더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사회성원의 기준은 영토 혹은 사회의 지역에 독점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하지만 이 기준도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사회성원의 유사성은 사회의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의 문화이다. 사회는 상당할 정도로 유사한 문화를 소유하고 있고, 문화는 사회의 산물이다.

나. 문화(culture)의 정의

어의상 문화는 라틴어의 colere(cultivate)에서 유래하였으며, 자라고 다듬는 다는 의미를 뜻한다. 모든 인간사회는 사회에 따라 다른 언어, 규범, 가치, 상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복합적인 생활양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화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문화를 처음으로 정의한 테일러(Taylor)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얻은 다른 모든 능력과 관습을 포함하는 총복합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호프스테드(Geert Hofstede)는 문화를 '한 집단의 성원을 다른 성원과 구별하는 정신의 집단적 프로그래밍'라고 지적한다.

문화에 대한 정의는 특정 집단을 지칭하고 있다. 물론 보편적인 문화 (universal culture)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문화(a culture)라면 특정집단의 특수한 문화를 의미한다. 모든 집단은 문화를 지니며, 한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에 문화의 차이는 클 수 있다. 문화를 집단 자신의 문화 의미에 따라 검토하고 다른 문화와 비교해야 한다.6)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된다. 문화가 특정 집단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문화가 인간의 본능에만 근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물은 자신의 지역 혹은 집단에 관계없이 동일한 본능에 바탕을 둔 행태를 하고 있으나, 인간은 사회관계를 맺음으로써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고 습득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한다.

우리의 의식주를 보면 우리는 한복을 자연스럽게 입고 한옥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쌀을 주식으로 하여, 김치와 불고기를 먹고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와는 달리 중동의 유목민은 텐트에서 살고 밀을 주식으로 하며 양고기를 먹고 우리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인도의 대다수 인구는 쇠고기를 먹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이든 다른 사회이든 이 같은 사례는 문화의 차이를 의미하여, 사회 없이 문화가 존재하지 않고 문화 없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인간은 사회에서 생존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동물처럼 본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문화에 의존하고 있다.

다. 문화의 구성요소

문화가 사회에 따라 상이할지라도, 문화는 다음과 같은 몇몇 공동의 요소를 지닌다.

1) 상징(symbols)

6) Henry L. Tischler, Introduction to Sociology, Belmont : Thompson & Wadsworth, 2004, p. 56.

주변의 환경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징은 사회성원이 인지하는 특정의미를 지닌 어떤 것도 포함한다. 7) 따라서 모든 문화는 자체의 상징을 지니며, 상이한 지각과 경험을 연상하게 한다. 한 문화의 성원은 상징을 항상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국기에 애국심, 희생심, 조국, 모국 등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국기는 이 같은 의미를 부여한 상징이며, 이 의 미가 없다면 국기는 무의미할 것이다. 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복, 김치, 된장, 태극기, 태권도, 한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가 지니고 있 는 상징에서 비롯된 것이다.

색(colors)의 상징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중국에서 붉은 색은 행운을 뜻하며, 일본에서 검은색은 불행을 의미한다. 이슬람에서 녹색은 신성함, 부활, 풍요와 재생을 연상시키는 존중의 대상이다. 하마스(Hamas)의 국기, 이란의국기, 리비아의 국기가 녹색으로 된 것은 이 같은 상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녹색은 죽음, 질병, 질투 혹은 악마를 연상시킨다.

제스처도 상징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예들 들어 시선 마주침 (eye_contact)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구 문화에서 시선을 마주침은 신뢰, 자신감, 흥미 등을 의미하며 시선을 피하는 제스처는 신뢰할만하지 않거나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을 상대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아시아 사회에서는 시선을 피함은 존경의 표시이며 시선을 계속 마주치면 이를 공격적이거나 경멸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시선 마주침을 두 문화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것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만사 오케이(OK)라는 의미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모욕으로 간주할 정도로 상충한 해석을 낳고 있다. 문

⁷⁾ John J Macionis, Sociology, New York: Prentice Hall, 1994, p.69.

화간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미국인은 보통 만나면 '안녕' '잘 지내니?' 라고 하는 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 같은 말보다는 비언어적 수단을 사용하여 존경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젊은이는 연장자에게 고개를 깊게숙이고 인사한다. 서구와 우리사회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광고는 흔하며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중동에서 이 같은 광고는 공공의 분노를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서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나 놀랄 수 있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이 같은 상징의 의미를 학습하고 해석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는 어떤 행동 혹은 대상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나,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닐 수 있다. 상징은 집단 성원 내부에서만 의미를 지니면서 집단외부 성원과 구별하게 한다. 상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변화할 수 있으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있다. 상징 없이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상징을 알지못하면 다른 문화성원과 접촉할 때 오해와 갈등은 커질 수 있다.

2) 언어(language)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은 언어사회학(sociology of language) 과 사회언어학(socio_linguistics)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언어연구를 통하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후자는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연구에 초점을 두고, 언어 구조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언어가 어떻게 기능하는 가를 밝히려는 목적을 지닌다.8)

⁸⁾ R. Hudson, Socioli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4.

양자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하나의 언어를 정의하는 일은 불충분하다. 그래서 언어사회학자들은 한 언어와 다른 언어 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상호의사 소통성(mutual intelligi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즉 만약 두 언어의 사용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면 이 두 언어는 같은 언어의 변종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몇몇 언어 보기를 들면 스 웨덴어와 노르웨이어는 서로 다른 언어로 분류될지라도 상호의사소통이 가 능하므로 같은 언어가 변종된 것으로 본다. 한 언어의 지리적 변종과 사회 적 변종에서 차이의 범위도 다양하다.

이언어주의(bilingualism, 다언어주의(multi_lingualism))를 살펴보면, 이언어 사용자에 있어 언어는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A국에서 B국으로 온 이민자는 모국어의 변종을 만들어 내며 이 언어 변종은 일단의 화자들 즉 A에서 온 이민자 혹은 이언어 부모가 가장인 가정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이들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B국어도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이한 패턴을 발전시킨다. 다이글로시아(diglossia)의 상황이바로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된다. 그리고 영어는 현재 세계어(global language)로 인류역사에서 영어만큼 많은 사람이 사용한 언어는 없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면 첫째로 언어는 문화현실을 표출한다. 언어는 전달할 수 있는 사실, 관념, 사건을 표현하며, 화자 혹은 저자의 태도, 신념, 관점뿐만 아니라 타자의 것도 표현하고 있다. 둘째로 언어는 문화현실을 구체화한다. 한 공동체 혹은 사회집단의 성원들은 경험을 언어로써 나타낼뿐만 아니라 경험을 창조한다. 보기를 들면 면대면 대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서 혹은 전화를 하거나 신문을 읽고 그래프와 차트를 해석해서 언어에 의미를 부여한다. 얼굴표정, 목소리의 톤, 문체, 제스처 등도 문화현실을 구체화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문화현실을 상징화한다. 언어는 스스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인(signs)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이다. 화자는 언어를 사용하여 자신과 타인을 확인한다.9

언어는 문화의 영속성과 정체성의 중요한 원천이다. 자신의 언어를 상실하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언어를 통하여 문화 전달이 이루어지고 문화유산이 축적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우리의 조상의 지닌 사고, 사상, 감정을 담는 그릇이며 담긴 내용을 과거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3) 언어의 상대성

인간의 언어와 그 의미는 다양할 수 있으나, 근대초 언어학자와 문헌학자는 민족 언어가 문화적으로 유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가운데 헤르더(Johann Herder, 1744-1803)와 홈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2-1835)는 세계언어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즉 상이한 민족이 상이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언어가 주변의 세계를 상이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를 미국의 언어학자인 보애스(Franz Boas), 사피어(Edward Sapir), 워프(Lee Whorf) 등이 정교화하였다. 언어와 사고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워프(Whorf)의 관점을 사피어 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이라고 한다. 이 가설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사용자는 시간을 선형적으로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체계에 코드화된 사건을 객관적 연속이라고 보는 반면에, 호피(Hopi)족은 경험을 비교하고 보면서 강도(주관적으로)와 지속성으로(객관적으로) 시간을 생각한다. 다른 보기를 들면 서구 사람은 시간을 고정된 자산으로 보고 인간의 필요는 일과표 혹은 마감시간의

⁹⁾ Claire Kramsch, Language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3.

요구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보지만, 인도인과 그리스인은 시간을 인간의 종이며 도구로 보면서 시간이 인간의 필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간주한다. 그래서 인도사람의 경우에 시간은 느슨한 것이고 시간에 쫓기는 분주한 행동을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사람이 자신의 언어에 의거하여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상이한 언어를 지닌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서로의 언어를 명백하게 번역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같은 방식을 공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언어의 기초가 되는 개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다는 말이다. 요약하면 이 가설은 언어가우리의 사고를 결정 · 지적한다고 본다.10)

이 가설의 강력한 논거는 편견과 인종주의를 낳을 수 있으나, 워프(Whorf)는 이 가설이 인간의 이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언어를 바꿀 수 있다. 예컨대 사회평등의 욕망에서 미국사회는 Negro란 단어를 black or person of color로 대체하였는데, 30년 뒤에 이 같은 상징적인 변동이 미국 내 흑인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에는 여성을 Miss(미혼여성) 혹은 Mrs(기혼여성)이라고 칭하지 않고 여성이라고 부르는 것도 양성평등의 결과이며 동시에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보기는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일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11)

4) 가치(values)

¹⁰⁾ Claire Kramsch, Language and Cul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11~15.

¹¹⁾ Macionis, Clarke, Gerber, Sociology, Ontario: Prentice Hall Inc., 1994, pp. 74-75.

가치란 옳고 그름,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 나쁜 것과 선한 것에 관한 관념이다. 한 문화의 성원이 이 같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며, 가치는 중요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뿐만 아니라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가치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한다고 하겠다. 문화의 가치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

5) 불일치성과 갈등

문화적 가치는 종종 불일치하고 모순적일 수 있다. A란 가치가 B란 가치와 상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가치불일치와 갈등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들 사이에 긴장되고 다루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는 이 같은 갈등을 무시할 수 있으나, 자주 \다른 가치를 희생하여 한 가치를 선호하거나 추구하기로 결정하기도 한다.

가치는 변화하고 우리가 지닌 문화의 가치는 다른 문화의 가치와 다를 수 있다.12)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토지의 사유 개념이 거의 없다. 상이한 사람이 같은 토지에 대하여 상이한 권리를 지닌다. 한 사람은 의식권, 어떤 이는 사냥권, 조업권, 주거권, 통행권 등을 따로 지닌다. 어느 누구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다. 이는 토지사유재산권에 대한 다른 사회의 가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파푸아 뉴기니에서 한 젊은이가 마을 주술사에 의해살해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젊은이가 기업으로 개인적 부를 획득하여 성공하였으나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마을에 개인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이었다. 파푸아 뉴기니 사회는 경쟁과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와 협동에 바탕을 둔 사회이다. 아프리카 가나 사람은 서구 식민주의자가 서구형

¹²⁾ Ellis, William N., and Margaret McMahon Ellis, "Cultures in Transition: What the West Can Learn from Developing Countries," March-April 1989. Futurist.

경제교환 형식을 도입하기 전까지, 주고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빈자와 추방당한 자란 공동체에 기부하기를 거부하거나 재화를 축적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였다. 문화에 따라 성공한 젊은이가 칭송되기도 하나 살해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6) 규범(norms)

규범은 특정상황에서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다. 규범은 특정문화에서 공유하고 있는 규칙이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행동을 규정한다. 그래서 일부 규범은 금지적(proscriptive)이다. 즉 우리가 하지말아야할 것을 명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혼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거나간음하지 말라는 것 등이 있다. 다른 규범은 지시적(prescriptive)이다. 즉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언급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학생은 학교에 가야한다거나음악회에서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등이 있다. 규범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섬너(Sumner)는 규범을 엄격성의 강도에 따라 민습 (folkways), 원규(mores), 금기(taboos), 법(laws)으로 분류하고 있다.13) **민습**은 과거부터 전해 내려온 상당히 약한 규범으로 종종 인습(因襲,convent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아침밥을 먹는 행위는 민습이며, 손으로 아침밥을 먹는 행위는 민습의 위반이다. 민습의 위반은 특정문화에서는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작은 비공식적 재제만을 받을 뿐이다. 보기를 들면 여름에 상반신을 드러내고 길을 걷는 남성은 민습을 위반

Robert C. Bannister, ed. On Liberty, Society, and Politics: The Essential Essays of William Graham Sumner,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Press, 1992).

하고 있으나, 처벌은 비웃음, 기묘한 웃음, 손가락질 당하기 등에 그친다. 민 습은 우리가 좋은 예절과 정중한 태도로 따라야만 하는 것과 집단의 생존과 복지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가 원규이다. **원규**는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는데 원규를 위배하였을 때, 그 위 반자는 처벌을 받거나 제재를 받기 쉽다. 제재란 욕설, 뺨때리기, 격렬한 비 난, 물리적 폭력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원규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존재할 수 없을 수 있다. 더운 여름 나체로 길을 걷는 사람은 원규 를 위반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강한 제재를 당할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이 사 회에 해가 되거나 치명적이라고 판단하면 원규에 의하여 비난을 받게 된다. 원규는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에 해당되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의미 를 지니며, 특정 문화 안에서 장소와 사람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금기**는 고도로 불쾌하며 상상할 수 없는 특정행동의 금지를 의미한다. 보기를 들면 근친상간 금기이다. 이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성관계를 가족 밖 의 성원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정치제도에 의하여 입법화된 규범 이다. 보기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는 규범이 있다. 법 제정의 목적은 원규, 인습, 금기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 운 사회질서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법의 제정은 위반자에 대한 정확 한 처벌을 뜻할 뿐만 아니라 특정행동의 강제를 포함한다.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범에 대한 **동조**가 있어야 하며, 모든 문화의 성원은 규범에 동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타자로 부터의 처벌과 보상은 이 같은 동조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은 항상 제재(sanction)와 연결되어, 우리가 규범에 동조하면 긍정적 제재라는 보상을 받고 동조하지 않으면 부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재에는 공식적인 제재(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비공식적 제재(긍정적 혹은 부정적)도 따른다.14) 한편으로 모든 문화성원은 내면화의 메커니즘을 발전

¹⁴⁾ Mooney, Knox, Schacht,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Belmont: Wadsworth, 2002,

시키고 있다. 내면화란 규범과 가치가 자신의 안으로 철저히 스며들게 하여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사회과정이다. 규범에 따른 행동 제재는 규범동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내면 화는 규범을 위배하였지만 부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위반자에 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사회통제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라. 이상형 문화와 현실형 문화

가치와 규범에 일치하는 행동과 실제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상형 문화란 문화적 가치와 규범이 명한 바에 일치하는 문화이며, 현실형문화란 실제 발 생하는 문화를 뜻한다. 이상형문화와 현실형 문화의 차이는 종종 합리화에 의하여 회피되기도 하며 이 같은 차이와 갈등은 문화의 일부로 자리한다. 이상형 패턴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학교, 국가, 공동체에서 사려 깊게 전달되며 가르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현실형 패턴은 종종 비공개적이 며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 되지 않는 몇몇 행동패턴은 넓게 실천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비도덕 적이고 불법적 행동이 도덕적이고 합법적 행동과 더불어 지속된다. 우리 사 회에 이상형문화와 현실형 문화가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도, 언어 행동이 낯선 환경에 처음으로 노출되면, 사람들은 종종 문화충 격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언어, 태도, 행동, 상징이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므로, 이문화간 오해가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이해하기 는 쉽다. 문화는 관습, 상이한 제스처, 대화할 때 상대와의 거리, 악수와 인 사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상이한 문 화출신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의 틀을 세워 이문화간 차이의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다.

p. 8

마.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문화 상대성(cultural relativity)

다문화를 설명하기에 앞서 다문화사회의 문제점과 관련이 깊은 자문화중심 주의,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문화상대성을 먼저 검토하기로 한다.

1) 자문화중심주의(ethnocentrism)

우리는 종종 타문화의 성원의 행동을 야만적 혹은 무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의 개고기를 먹는 문화를 야만적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서의 우리가 지닌 가치와 규범을 자연 질서인 것처럼 당연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문화 안에 있어서 가치와 규범을 하나의 문화로 간주하지않기 때문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란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고 정상으로 보고, 자신의 문화기준에 따라 다른 문화를 판단하려는 경향을 뜻한다. 즉 자신의 문화가 다른 사람의 문화보다 우월하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의 선 혹은 악을 측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미국인은 중국과 한국, 일본을 극동(Far East)으로 칭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중심에 놓고 하는 평가이다. 반면 중국은 자신을 중국(the cental kingdom즉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중국문화의 자민족중심관념(the ethno-centric ideas of Chinese Tradition)을 강조하기도 한다. '중국은 흘러드는 모든 강물에 염기를 부여하는 바다'라는 중국중심의 세계관이 자민족중심주의를 대변하고 있다.15) 중국은 자국 주변의 세계를 오랑캐로 해석하

¹⁵⁾ 피츠제랄드 지음, 중국의 세계관, 서울: 민족문화사, 1982.

기도 하였다. 고대 그리이스인도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을 야만인으로 기술하였다. 오늘날 한국도 자국을 세계의 중심, 동아시아의 허브국가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도 자국의 생활양식과 성취에 긍지를 지니면서 다른 모든 나라를 무코즈(mukoz) 라고 하는데 이는 '저기(over there)'를 뜻하는 애매한용어이다. 또한 일본 사람은 자국민이 다른 모든 나라 사람과 다른 뇌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16)

이 같은 자국중심주의는 집단의 결속, 충성심,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자국중심주의라기 보다는 민족주의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득세하는 지역도 있다. 민족주의란 특정 민족이 역사적 권리 혹은 신이 부여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믿는 관념이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자민족의 규율에 따라 개화하고 계몽하는 것이 자신의 명백한 사명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국중심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니게 할 수 있으며, 우수한 문화의 도입을 방해한다. 또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사회발전을 더디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국중심주의는 집단의 안정과 생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고립적이고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인하여 자신의 문화를 소멸시키고 문화집단을 사라지게 할 위험도 있다.

2) 문화상대성

자문화중심주의와는 달리 문화상대성의 관점에서도 문화를 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의거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따

¹⁶⁾ Peter Tasker, 1987, Bryjak & Soroka, Sociology, cultural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 Boston: Allyn and Bacon, 1994, p. 57.

라서 문화상대성은 문화는 상이하며 문화의 차이를 선악의 판단기준 혹은 결함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상이한 사회가 상이한 문화를 낳을 수 있고 모든 문화가 개별 문화 자체의 맥락 내에서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문화는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준을 사용하여 다른 사회 예컨대 베트남 사회의 관행, 태도,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1964년 동경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배구팀이 중요한 게임에서 패하자, 이 팀이 형편없이 진 것은 아닌데도 이들은 울면서수치 감정(a profound sense of shame)을 드러내었다.17) 서구적 관점에서보면 이 같은 일본 여자 팀의 행동은 패자의 미성숙하고 형편없는 스포츠맨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이 행동은 금메달을 일본국민에게 전해주지 못한 수치의 감정을 울면서 드러낸 것뿐이었다. 문화상대성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여자 배구팀의 행동을 서구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18)

문화상대성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의 의미에 의거하여 이해하려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다른 문화에서의 행동을 어느 범위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논쟁거리이다. 그리고 20세기 말 유고슬라비아에서 시작된 인종청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독재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행위 등을 문화상대성에 입각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자문화중심주의와 문화상대성은 대립하고 있고, 우리 문화 내에서 양자는

¹⁷⁾ Peter Tasker, The Japanese: a major exploration of modern Japan, New York: Penguin Books, 1988. p. 30.

¹⁸⁾ Bryjak & Soroka, Sociology, Cultural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 Boston : Allyn and Bacon,1994, p. 58.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3)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외국인 혐오증은 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공포 혹은 증오를 의미한다. xenophobia 란 말은 그리스어의 Xenos에서 유래하였는데 외국인 혹은 이인 (異人)이라는 의미이며, phobia는 phobos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두려움이다. 이 두 의미를 합하여 xenophobia는 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두려움혹은 불신으로 정의될 수 있다.19)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은 인종주의와 다르다. 인종주의는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인 혐오증은 두려움에 근거한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말한다. UNESCO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신체특성인 피부색, 머리타입, 얼굴 특징과 같은 차이에 근거한 편견이다. 외국인 혐오증은 어떤 사람이 외부인이거나 공동체 혹은 민족에 외래적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신념이다.

<표II-1> 상이한 문화와 생활방식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의 비율

| 출생국 | 부정적 태도 | 긍정적 태도 | 평균수치 |
|----------|--------|--------|------|
| 회교국 | 77 | 15 | 2.06 |
| 발트 해 연안국 | 72 | 15 | 2.23 |
| 아프리카 국가 | 68 | 24 | 2.32 |
| 아시아 국가 | 67 | 23 | 2.36 |
| 미국 | 51 | 35 | 2.80 |

¹⁹⁾ 아래의 글은 Jamie Bordeau, Xenophobia : the violence of fear and hate, New York : the Rosen Publishing Group, 2010, pp. 4-13을 요약한 것임.

| 독일 | 45 | 19 | 2.67 | | |
|--------------------------------------|----|----|------|--|--|
| 아이슬란드 | 37 | 29 | 2.90 | | |
| 핀란드 | 32 | 16 | 2.79 | | |
| 프랑스 | 32 | 40 | 3.07 | | |
| 영국 | 25 | 38 | 3.12 | | |
| 덴마크 | 21 | 15 | 2.92 | | |
| 노르웨이 | 14 | 12 | 2.98 | | |
| * 평균치가 높을수록 5점 스케일에서 더 긍정적인 태도에 가깝다. | | | | | |

출처: Mikael Hjerm, What the Future May Bring, Xenophobia among Swedish Adolescents, Acta Socologica 2005 December, vol 48(4); 292-307.

인구의 이동이 세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서, 인구 구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혐오 폭력이 세계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2010년 2월 러시아의 바르나울 시에 단기 유학중인 한국학생이 러시아 극우주의자에 의하여 피살되는 사고 등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 배후는 러시아 극우민족주의자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20)

외국인 혐오적인 태도와 폭력을 부추기는 많은 요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경제적 고통, 득세하는 민족주의와 토착주의, 이민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이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 테러에 따른 안보위협과 연관하여 외국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기도 한다.

경제적 위기 혹은 갈등의 시기에 사람들은 희생양이나 비난할 사람을 찾는

²⁰⁾ 서울신문 2010년 3월 8일.

데, 그 이유는 자신의 빈곤한 경제상황과 경제적 고통 때문이다. 이민자가 유입되는 사회에서 실업이 증가하면 외국인 혐오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가 오래 살아온 내국인과 직장을 얻기 위해 경쟁하여 이민자가 내국 인의 직업보장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이민 감정은 민족주의와 토착주의 집단을 발생하게 한다. 민족주의자는 자신의 국가와 전통을 강조하므로, 외국인혐오증과 결합할 수 있다. 민족주의자는 이민자를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본다. 토착주의자는 자국 토박이가 이민자보다 더 많은 권리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와 토착주의는 외국인 혐오 사고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이 점점 증가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상이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유입을 다루고 있다. 급속히 변화하는 불확실한 시기에 사람들은 이인(異人)을 두려워할 수 있고, 일부 사람들이 이 같은 두려움을 정당화하려고 외국인혐오 관점에 호소하기도 한다.

2. 단일문화(monocultural) 사회에서 다문화 (multicultural) 사회로의 변화

가. 배경: 국제이주

국제연합에 의하면, 2005년 약 1억 9천 100만 명이 태생국 밖에서 살고 있으며 난민의 수는 900만 명이라고 했다. 그 가운데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보다 더 많다. 이 인구는 세계 5대 인구대국인 브라질의 인구와 비슷하며, 35명당 1명이 국제이주자에 해당된다. 이는 세계전체인구의 약 3%에 달하며

국제이주자의 수는 25년 만에 배로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세계이주인구의 20%인 3천 500 만명이 미국에 살고 있었고, 러시아연방은 둘째로 큰 이주인구의 유치국으로 1천 300 만명이 거주하였다. 독일, 우크라이나, 인도에는 각각 600 만명 ~ 700 만명의 이주자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3천 500 만명, 인도인 2000 만명, 800 만명의 필리핀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다.

<표II-2> 지역에 따른 국제이주자의 수(백만), 1970 ~ 2005

| 년도 | 1970 | 1980 | 1990 | 2000 | 2005 |
|-----|------|------|-------|-------|---------|
| 세계 | 81.5 | 99.8 | 154.0 | 174.9 | 200(추정) |
| 선진국 | 38.3 | 47.7 | 89.7 | 110.3 | 자료없음 |
| 개도국 | 43.2 | 52.1 | 64.3 | 64.6 | 자료없음 |

출처: UNDESA, World Economic and Social Suvrey: International Migration(New York : UN, 2004).

OECD에 따르면 2008년 영구 합법이민자는 4 백 40 만 명이며 임시 입국 노동자의 수는 230 만 여 명이다. 미국이 받아들인 망명이민자 수는 3만 9천 400명으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도 약 30 만 명이상을 수용하였다. 또한 2000년에서 2007년에 걸쳐 국제학생의 수는 2배로들어 200만 명이 이상이 되었으며, 주요 유학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호주였다. 이 같은 비중은 뉴질랜드와 한국, 네덜란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순으로 급증해, 이들 가운데 평균 21%의 이주자가 체류하고 있다. 2008년 이주민 출신국을 보면, 중국, 폴란드 인도, 멕시코가 최상위국이었으며, 폴란드 출신의 유럽이주도 높은 수준이다.21)

²¹⁾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0.

이 같은 사실은 국제이주가 오늘날의 국제문제이며 동시에 세계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몇몇 이주자는 이주국에 정주한 뒤에 착취 당하고 인신매매의 희생자와 성산업의 노예가 되기도 하며, 취업노동자는 남용되고 악덕 고용주로 부터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많은 이주자와 그 가족은 차별과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주국 사회에도 부정적 결 과를 낳고 있다. 국제이주는 세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주자, 이주국, 이주 자의 본국에게 도전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²²)

나.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국제이주가 일반화 세계화되기 이전에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대체로 단일문화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단일 언어, 단일 가치, 단일 규범을 통하여 단일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원래단일 문화사회를 형성할 수 없었던 지역도 있다. 보기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인도에는 300개의 계급제도로 이루어진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거의 200개의 언어와 630개의 지역 방언이 사용되고있다. 그리고 인도의 다수 인구가 신봉하는 힌두교는 수 백년 동안 다른 종교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불화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하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와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국제이주와 관련하여 진행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관심은 20세기 말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이주자들은 모국을 떠나 이주국으로 이동하여 살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함께 이주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므로 문화갈등, 문화충돌, 문화충격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이주자와 이주국 시민, 이주국은 다문화에 직면하게 된다.

²²⁾Khalid Koser, International Migr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 3-13.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지니며, 다문화사회의 성원은 상이한 신념과 규범, 상징체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상이하게 구조화한다. 다문화사회 성원들의 가치와 규범 가운데 일부는 중복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다르다.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단일문화사회에서와는 달리, 이들은 바람직한 삶에 대한 일상적 관점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상호작용과 행동에 상이한 가치를 부여한다.

3. 민족집단(ethnic groups)과 다문화사회의 의의,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

가. 민족집단

이주자들은 이주국 내에서 민족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민족집단이란 동일한 사회에서의 상이한 문화집단들을 의미하는데, 문화차이가 한 집단을 민족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족집단은 개인을 몇몇 문화적 기초에서 유대집단으로 결속시키는 감정의 바탕위에 존재할 수 있다.²³⁾ 영구합법이주자이든, 임시 입국 노동자이든, 국제유학생이든, 난민이든, 이들모두는 이주국의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면서 민족집단을 형성한다. 상이한민족집단들의 성원은 서로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집단을 넘어서 이성교제를 하고 구애하고 결혼하는 사람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 해외여행, 국제유학의 증가 등도 다른문화와의 접촉을 빈번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방송, 외국영화, 해외잡지, 인터넷 등은 우리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도록 해준다.

²³⁾ Rodney Stark, Sociology, Belmont: Wadsworth, 2004, p.288.

나. 다문화사회의 의의

단일문화에서 다문화사회로의 변동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단일민족인가?
우리의 단일문화로서 가치와 규범을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단일민족으로 수 천 년의 역사를 지니는가?
단일민족이란 특정 국가 혹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가?
우리는 단일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가?
한민족 문화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인가?

우리가 다문화와 접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각양각색의 다문화 적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과거 세대와는 크게 다르게 다문화 국가 다문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다문화 출신의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관념, 사상, 상품, 사람의 이문화간 유입과 유출은, 국제이민, 세계적 매스미디어의 확산, 다국적 기업, 해외여행과 더불어 다문화간 접촉과 상호작용을 기회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문화상 다른 개인과 효율적으로 함께 일하고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술, 태도와 지식을 지닐 필요성커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 문화 집단의 규범, 가치, 언어, 상징을 배워야하며 다양한 민족집단의

개인적 문화적 태도와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다. 문화가 개인의 행동, 가족의 상호작용 나아가 사회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문화되고 있는 사회 - 문화적 다양성 - 안에 살고 있다. 비록 다문화의 속도와 범위가 상이할지라도, 문화의 차이가 풍부해져 우리는 각 문화가 지닌 각양각색의 색깔을 쉽게 볼 수 있다.

영국 BBC의 한 독자는 다문화사회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궁정적이다. 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인종이 서로 배우는 것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을 한다. 만약 상이한 문화를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더욱 더 조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든 문화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과 함께 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회에 결코 유익하지 못한 행동이다. 내가 이탈리아를 간다면 나는 이탈리아 사람을 만나 내가 그들의 생활방식을 배우는 것과 같이 나의 문화를 그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화를 주고 받음이 영국에서도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인이 외국에 가서 그 곳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문화가 영국적 방식에만 준수해야 한다고 왜 기대하고 있을까? 영국적 방식이 항상 최선의 방식의 될 수 없고... 우리는 다른 문화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유는 더 넓은 사회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24)

다문화사회를 지지하는 논거는 벌린(Isiah Berlin)의 다원주의에 대한 견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보편적 가치는 없으며 상충하는 다양한 진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의 민족이 당신의 민족보다 우월하다. 나는 세계형성의 방법을 알고 있고 당신은 모르므로 나에게 복종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보다 열등하며, 나의 민족이 최상이고 당신의 민족은 나의 민족보다

²⁴⁾ Is a multicultural society best? 2004년 4월15일 BBC, Geraldine, Glasgow, Scotland.

훨씬 아래에 있으며.... 나의 민족이 최선의 가능한 세계를 창조할 자격이 있다. 이는 일종의 병리적 극단주의로써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낳아왔으며내가 기술하여온 다원주의의 종류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25)

벌린의 다원주의는 상이한 도덕적 개념에 의해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다기 보다는 이문화간 차이를 수용하거나 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정 치적 도덕적 관점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우리는 부패하기보다는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자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다 원주의자는 인종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가 말한 (백인의) 사명을 탐구로 전 환할 수 있다. 윤리적 획일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보다 윤리적 다양성이 지배 하는 세계를 찾아낼 수 있다.26)

다원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상이한 사람과 상이한 문화는 상이한 가치, 규범, 언어,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각각 타당하고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원주의, 민족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종교적 광신주의 같은 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의 가치는 다원주의라는 것이다.

UNESCO는 2001년 "문화다양성 선언(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에서 "문화는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정체성, 사회적 결속 및 지식기반경제의발전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대사회는 문화적 정체성의 다양성이란 특징을 지니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문화다원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점점 다양해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정체성을 지닌 사람 및 집단 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결

²⁵⁾ Pluralism, Isiah Berlin,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XLV, Number 8, 1998.

²⁶⁾ Isaiah Berlin's Key Idea, Henry Hardy, Romulus , the magazine of Wolfson College, Oxford, NS 4 No 1, Trinity 2000, pp. 4 - 5.

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므로 문화다원주의는 문화다양성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 체계로부터 분리할 수없는 문화다원주의는 문화교류와 공공의 삶을 유지하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제2조) 문화다양성을 단순한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지적, 감정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야한다는 것이다(제3조).

다문화사회와 다원주의에 대한 견해가 일반화되고 있어서, 다문화사회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민자의 인구구성이 가장 높은 국가인 미국의 인구 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28%이상이 비백인 혹은 라틴 아메리카 계 인구이며(2000), 2060년에는 라틴 아메리카 계가 미국 인구에서 다수민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도 2009년 한해에만 국경을 넘어서 이동한 총출입국자가 3,143만 1천명에 달하며, 체류 입국자의 수도 24만 2천 824명이다. 체류외국인도 2008년에 118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2%에 이른다. 국제결혼이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다.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과 다문화사회

이문화간 접촉과 국제이주의 증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축적한다. 단일문화사회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은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생활에서 하찮은 사실이었다. 이 같은 사회는 주류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문화적 다양성이 정치사회부분에서 발언권이 거의 없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 문화적 다양성은 현대생활의 중심적인 정치생활을 이루고 있으며, 우리에게 도전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파레크(Bhikhu Parekh)에 따르면, 문화적 다양성은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부문이며 보존해야할 가치라고 한다. 이는 삶의 다양성과 미적(aesthetic)인 의미를 부여하며,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우리 자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 며, 선한 생활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고한다. 어느 문화도 완전하지 않고 각 문화는 제한된 선한생활관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 의 문화를 보충하고 풍요롭게 하기위해서는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문화적 다양성은 인간복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다른 문화는 자신의 문화의 강점과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자의식, 자기비판, 그리고 자 기갱생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문화가 양육하는 문화적 다양성 문화간 대화와 문화 안에서의 대화는 우리가 지닌 의식적 무의식적인 문화적인 가 정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의 합리성의 능력을 강화하고 깊게 할 수 있다. 세 계화, 인종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공산주의 등의 역사적 경험, 세계화, 생태 적인 위협, 서구문화에 대한 비판과 서구문화 자신의 내적 성찰, 탈식민화, 지금까지 주변화되고 열등하다고 생각된 문화의 자신감과 번영과 더불어 소 소수 민족 문화는 지배문화의 보편적 주장에 도전하면서 평등자 사이의 대 화, 문화적 다양성을 요청하고 있다.27)

문화적 다양성은 대립적 가치와 규범, 태도, 행동에 대한 관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같은 관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문화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 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만 한다. 말 하자면 인간은 자신의 문화에 근거하거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한 대 우를 받을 수 없다는 문화권리(cultural rights)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 문화적 성숙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기초한다. 문화적 다원주의는 민주주

²⁷⁾ Bhikhu Parekh, Dialogue between cultures in Ramon Maiz Suarez, Frerran Requejo Coll, Democracy,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New York: Frank Cass, 2006, , p.15~16.

의사회 내에서 가능하다. 민주주의제도는 집단, 개인, 기질에서 개별성을 고무하며, 그 프로그램은 이 같은 개별성을 해방시켜 자유와 협력이란 동료애 (fellowship)로 인도한다".28)

4. 가족 패턴(ethnic family patterns)의 변화 : 다문화가족과 쟁점

민족집단의 사회 구성이 변화하고 다양화되면서, 가족의 민족적 구성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란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으로 승인 인정된성적인 결합으로, 결혼으로 넓은 범주의 친족이 연결된다. 가족이란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직접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이며, 가족의 성인은 어린이양육에 책임을 진다.

어느 사회이든 성인 남녀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적으로 결합하는 데에는 일정한 사회적 형식이 있다. 즉 배우자 선택의 범위에 사회적 규제가따른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족외혼(exogomy)이 있다. 족외혼이란 일정한 대상 밖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제이다. 근친사이의 결혼 금지는 족외혼의 전형적 보기이다. 둘째, 족내혼(endogamy)이다. 족내혼은 우리가 동일 인종, 동일 계층, 동일 종교, 비슷한 교육수준, 비슷한 나이와 개인적 성격을 지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호모가미(homogamy)라고 하기도 한다. 이 같은 속성 가운데 동일계급과 동일인종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동일계층 출신 사이의 결혼 가능성이

²⁸⁾ Kallen, Rober M. Jiobu, Ethnicity and Assimil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 9에서 재인용.

줄어들고 있으나,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하층녀와 상층남이 결혼하여 하층녀의 신분이 상승하는 결혼은 승격혼(hypergam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층녀와 하층남이 결혼하여 하층남의 지위가 상승하는 결혼도 승격혼에 해당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와 자원이 높은 사람과 결혼하려는 경향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결혼이 이루어질가능성은 농업사회보다 산업화된 근대사회에서 더 높다.

대부분의 결혼은 동일 인종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보기를 살펴보면 1967년 미국 대법원이 이인종간 결혼을 금지한 법을 폐기할 때까지, 미국 주 가운데 17개 주가 동일인종끼리만 결혼하도록 하여 이인종간 결혼을 금지하였고, 현재에도 미국내에서는 결혼의 90%가 동일인종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9 단일 인종 가족이 일반적이었다. 아랍국가에서도 이인종간 결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란의 법에 따르면 회교도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외국인(이인종)은 사형선고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30)

하지만 오늘날 서구사회에서는 상이한 민족 집단출신의 사람들 사이의 결혼은 넓게 확산되고 있고, 점점 평범해지고 있다. 보기를 들면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약 절반이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운데 약 10%가 다른 인종집단의 사람과 결혼하고 있다.31) 미국 가족 안에서도 민족 구성이 다양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가족안의 민족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급속한 증가 때문이다. 국제결혼은 배우자의 선택범위에 대한 전통적 사회규제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동일인종 사이의 결혼을 넘어서고 있다. 2009

²⁹⁾ Scott Coltrane, Randall Collins,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Belmont: Wadsworth, 2001. p. 273.

³⁰⁾ USA Today, 1999년 4월 12일.

³¹⁾ R. Stanfield, 1997.

년 한국인 남편이 결혼한 외국인 처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순이었고, 한국인 처가 결혼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파키스탄, 영국 순이었다. 이렇듯 다민족으로구성된 가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인 남편(처)와 외국인 처(남편)이결혼하여 친족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민족 가족에 의한 친족간의 관계도 다민족화된다. 둘째,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처와 결혼한 혼인 건 수 가 한국인 처가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혼인 건수 보다 훨씬 높았다. 결혼 동기는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한국에 살기 위해서란 동기가 가장 높았고, 한국인 남편은 결혼이 어려워서 또는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한국여성이 별로 없어서란 대답을 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32) 결혼이민자의 결혼은 승격혼의 성격이 강하며, 한국인 남편은 애정보다는 국내결혼시장에서의 신부공급이 어려워지자 해외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처와 한국인 남성 사이에 나이차가 크다는 점도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 패턴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다민족 가정은 입양이 아니라 전통적 결혼패턴을 벗어난 결혼에 의하여 형성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도 이 같은 다문화가족을 "결혼이민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다민족 가족 패턴인 다문화가족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전통적 결혼패턴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에 봉착할 수 있다. 이문화간 결혼을 친구, 가족, 사회,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여긴다고 해석하기도 하며, 상이한 문화를 지닌 처와 남편 사이의 결혼은 문제를 야

³²⁾ 박대식, 농촌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개선방향, 특집/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국토정 책과제, pp. 31-38.

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챙(Tseng)에 따르면³³⁾ 다음과 같은 여섯 유형이다. 첫째, 일방적 적응이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문화패턴을 채택하는 것이다. 둘째, 대안적 적응이다. 한 때는 한 문화패턴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다른 때는 다른 문화패턴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셋째, 중간점 타협이다. 파트너가 상호적으로 각각의 입장 사이에 있는 한 해결책에 상호 동의하는 것이다. 넷째, 혼합 적응이다. 양쪽 문화의 일부를 대변하는 결합을 계속 채택하는 것이다. 다섯째 창조적 적응이다. 파트너가 새로운 행동을 위하여 각각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여섯째, 각각의 문화의 공존이다. 각 문화를 공존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국제결혼 파트너가 서로 인정하고 동화할 수 있도록 파트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가 그 곳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사회 안에서 문화안보(cultural security)를 확인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가치와 규범, 언어, 상징을 이해하고 존경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공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속내를 털어놓으며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적응책을 선택하고 우애관계를 양육할 수도 있다. 그들은 호혜성과 각각의 문화적 존엄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권한부여가 긍정적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 . 개인을 결합하는 인간적 특질을 존중하고
- . 털어놓고, 정직하고 치유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 .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 . 인종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에 직면할 때 아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 . 넓은 동료애적 인간관을 채택할 중요성을 인정하고

³³⁾ Tseng, Overview: culture and psychopathology, in Culture and Psychopathology: A Guide to Clinical Assessment. Edited by WS Tseng, J. Streltzer, New York: Brunner/Mazel, 1997, pp 1 - 27.

- . 긍정적인 자아감정,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개인적 안보를 명백히 하고
- .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연성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 고
- . 배우자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협력관계를 세우고
- . 한 집단에 문화적 혹은 인종적으로 특수한 특이한 특질을 넘어서야 한 다.34)

³⁴⁾ John Mcfadden & James L. Moore III, Intercultural marriage and intimacy; Beyond the continental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3: 2001. pp. 261-268.

Ⅲ. 다문화 사회의 문제

1. 배경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이란 특징을 지닌다. 가치, 규범, 생활스타일, 언어, 기대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낙관론 자의 견해와는 달리, 문화적 다양성을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공동제도에서 도 가족, 남녀관계, 혹은 부모 자식관계에 대한 태도 혹은 언어와 종교의 차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긴장을 낳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가족제도, 의료기관, 학교, 법률제도, 정치제도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폭력과 공개적인 갈등상태로 폭발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민족집단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을 독점하고 사회제도에 지배적 지위를 점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당연히 다른 인종집단이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한다. 또한 인종집단간 갈등과 폭력사태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사회서비스, 스포츠 등 광범위한 문화영역에서 각각 혹은 복합적으로 전개되도록 한다.

킴리카(Kymlicka)에 따르면³⁵⁾ 세계 184개의 독립국가에는 600이 넘는 살아 있는 언어집단이 있고 5000개의 민족집단들이 있다고 한다. 전체 시민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인종적 국민집단에 속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원래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민족(multiethnic)이었다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시기는 대규모 국제인구이동이 시작된 제2차 대전 이후이며, 특히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유발한 것은 탈

³⁵⁾ Kymlicka, Multicultural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1-2.

냉전이후의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 있었던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종청소 사 태였다.³⁶⁾

2. 국제이주자의 희망과 현실 그리고 반응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결혼을 할 때, 혹은 집을 살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그 목적을 생각하는 일은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이주자가 이주를 선택할 때, 어떤 목적을 지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국제이주자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가. 이주자의 희망과 목적

결혼이주자를 포함한 국제이주자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다음과 같은 목 적을 지니고 이주를 결정할 수 있다.

첫째로, 모국에서의 실업 혹은 모국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이다. 보기를 들면 2008년 라트비아의 전문직 일년 평균 총소득은 21000유로였으나, 아일랜드의 것은 51000유로였다. 따라서 아일랜드는 라트비아 전문직 종사자의 매력적인 이주 장소가 되었다.37) 2003년 미국의 실질임금을 100으로 볼 때, 멕시코는 16 브라질은 34에 지나지 않았다.38) 아시아의 보기를 들면 베트남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 210달러였으며 2005년에는 640 달러로 상승하였으나,39) 2005년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16291달러였고,

³⁶⁾ Adam Jamrozik, Luisa Nocella,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 107-109.

³⁷⁾ Salary difference between Ireland and Latvia has reduced by 25%, 2010년1월 10일, The Baltic Course.

³⁸⁾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³⁹⁾ 김현재, 베트남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제52 집, 2007년 2월.

중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1740달러였다. 이 같은 국가 사이의 임금격차와 이주자의 국내 임금격차는 이주자로 하여금 이주국을 결정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며, 또한 이주자로 하여금 이주에 의한 임금상승을 희망하게 한다.

둘째, 이주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주택, 여가, 음식과 풍요로운 개인소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민을 결정할 수 있다. 대체로 이민자는 일국으로 이민하여 생활하면서, 자신의 가족도 이주국의 사회편익을 향유하도록 할 수 있도록 가족이주를 결정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계가족성원뿐만 아니라 확대가족성원인 미혼 아이, 양자, 약혼녀, 부모와 조부모, 손자, 삼촌, 조카, 사촌 등도 포함된다. 가족이주는 유럽연합국가들에서는 이민자의 3/5에 해당되며, 미국에서는 가족이주는 70%, 캐나다에서는 27%에 달하였다(2000). 선진국의 사례에서는 경제적 목적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가족이주는 이주인구의 상당한 부문을 점한다.

셋째, 유치국의 시민증을 얻고 법률상 특별히 배제되지 않는 지위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이다. 보기를 들면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이주할 수 있으며, 미국 대법원은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한바 있다.40) 한국의 법무부가 마련한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도 '이중국적'을 허용한다고 한다. 즉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현행법을 바꿔 2개 이상 국적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 국적을포기하는 일은 금지된다. 최근 심각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해 인구유출을 막고,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한편, 병역 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를이 법령이 담고 있다.41)

⁴⁰⁾ US Supreme Court,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 참고.

넷째, 사회복지의 혜택을 위하여 특히 의료 서비스 혹은 자식을 위한 좋은 교육사회환경을 얻기 위해서이다. 미국행 한국이민자에 대하여 최근 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과거의 이민자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이민을 결심했다면 요즘의 이민자들은 거의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결정했다고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국에서 교육이 신뢰와 희망을 준다면 가족의 많은희생이 뒤따르는 '기러기 가족'이라는 용어가 탄생할 리 없고 이민을 꿈꾸는이들도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42)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주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주자의 이민결정은 이민자에 대한 유치국의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섯째, 더 큰 정치, 종교, 개인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GTR(Global Trends Report)은 2009년 세계난민의 수는 4천 300만 명이고 무국적 난민의 수도 6백 60 만명이라고 한다. 비공식적 통계는 무국적 난민의 수를 1천 2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2009년 말, 11만 2천 4백명은 19개국의 재정주 허가를 받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은 이 같은 난민이타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함으로써, 세계난민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 년 동안 1백30만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대부분 미국의시민권을 얻었다.43) 이는 인도주의적 이민의 허용이며,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주하는 사례는 난민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약 100 여년 전 유대인은 종교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차별 때문에,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다.44) 특히 독일 남부 지역의 바바리아 지방에서는 전문직에 대한 유대인 면허자의 수를 제한하였고, 뷔르템베르크(Wuerttemberg)지

⁴¹⁾ 한국일보, 2009년 11월 3일

⁴²⁾ 한남일보 2009년 8월 18일.

⁴³⁾ Number of refugees returning home drops to lowest in 20 years - UN report, 2010년 6월 15일

⁴⁴⁾ Robert Ernst, Immigrant Life in New York City, 1825-1863, New York: the Syracuse University Press,1994, p. 1.

방에서는 적어도 3년 동안 경작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토지는 유대인이 팔거나 교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유대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하는 배경이 되었다.45)

이주자들은 기술한 이 같은 목적 외에도 다양한 이유에서 이민을 결정하고 이주국에 정주할 수 있다. 도피처, 피난처 혹은 외국에 대한 호기심, 여행의기회, 강제적 조처 등도 이주의 동기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주자들의 목적을 검토할 때, 유치국이 이민자를 수용하는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유치국의 목적은 인도주의적, 경제적 혹은 정치적 동기를 포함한다. 보기를들면 독일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려고 주변국으로부터 대규모 노동이주를 허용하였다.

나. 현실

이주자들은 이주국에서 자신의 능력 혹은 업적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인간으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 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 신의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도 한다.

1) 가혹한 현실

이민자의 삶이 항상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이주자들 가운데 다수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한다. 현실은 꿈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민자가 이주하기 전에 품었던 환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주자의 삶은 어렵고, 잔인하고 무자비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이주자들은 운명에 자신을 포기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없으므로, 일부는 범

⁴⁵⁾ Robert Ernst, 1994, p.8

죄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불행을 보복하기 위해 타인에 해를 끼치는 데 즐 거움을 느끼며,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한다. 자신을 향한 불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주자들의 꿈이 좌절되는 이유를 지적하면 첫째, 이주자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와 낮은 임금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로의 이민노동의 유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 동분화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지닌 50년 동안 공공정책 - 시민법 및 사회운동 - 을 통하여 인종집단 사이의 기회를 개선하고 평등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결과를 낳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 같은 격차는 빈곤율, 교육성취, 건강상태와 같은 다른 복지척도에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46)

불법이주자와 노동자들은 적은 보수로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며, 고용주는 이 같은 불법이주자들의 입장을 악용하여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짜내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들의 노동조건은 악화되기도 한다.

서구사회가 이민에 대하여 지닌 우려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들에 의한 범죄 증가이다. 영국에서는 이민자의 범죄율이 민감한 문제여서 발표하기보다는 이민자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초점을 두기도하였다. 이민은 조직범죄의 가능성을 높이며, 주로 이 범죄는 혼인 밀매, 마약 거래, 인신매매 사기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⁴⁶⁾ Wage Gaps between Racial and Ethnic Groups are not diminishing, Research Brief, Public Policy of Institute of California, May 2003 issue no. 70.

둘째, 1970년대와 1980년대처럼 경제 불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민자들은 이주국에서 옛부터 내려온 노동집약 산업부문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부문은 자동화와 컴퓨터화에 의하여 노동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하여 새로운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실업과 빈곤은 커질 수 있다.

셋째, 이민자들이 다수민족문화성원으로부터의 차별을 넓게 받고 있다. 차별은 이민자의 피부색, 의복, 언어와 사회행동의 차이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다.

넷째, 자신이 이주하기 전에 품었던 목적과 희망을 불완전하게 달성하자, 많은 이주자들은 소수민족집단성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공동체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고립되어 살면서 주류문화성원들과는 최소한의 사회통합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은 최소화되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 조악한 주거지역에 제공되는 사회복지혜택은 자주 열악하고, 이에 따라 이민자들의 삶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민자들의 대부분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넓은 무력감에 빠지며, 이들이 향유하는 정치적 종교적 그리고 개인적 자유는 희미하다. 또한 경제 사회적 차별이라는 새로운 장애 물이 나타나 이들이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 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차별과 편견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다.

2) 편견과 차별

이민자들은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다수인종집단이 향유하는 자원과 권력을 불완전하게 향유하며 낮은 수준의 권리, 매우 적은 특권과 역시 적 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이 같은 소수민족 집단성원으로서의 이민자와 다 수 민족집단 성원 사이의 관계는 기능적 관점과 갈등적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기능주의자들은 다수민족집단과 소수민족집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가 생존하고 재생산하며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는 상호연관된 부분들로 된 체계이며 각 부분은 체계의 활력에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집단간 불평등은 사회에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 소수민족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사회는 소수민족집단의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없을 것이며, 편견과 차별은 범죄와 폭력, 전쟁, 빈곤, 건강문제, 도시의 몰락, 마약남용과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는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47)

갈등론자들은 민족집단 간 긴장을 낳고 유지함에 있어 부, 권력, 위신을 둘러싼 경쟁의 역할을 강조한다.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민족집단간 갈등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잉여노동력을 유지함으로써 자본가가 이윤을 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요이상의 노동자를 지님으로써, 임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며 소수민족이 잉여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저임금을 유지하고 자본가가 그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본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민족집단에 의미, 낙인, 그리고 정의(定義)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강조하기도 한다. 특정 민족집단의 특징에 대한 상이한

⁴⁷)Mooney, Knox & Schacht, Understanding Social Problem, Belmont: Wadsworth, 2002. p. 196.

해석이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영구화하기도 하며, 낙인 행위는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데 기 여한다. 고정관념이란 특정집단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과장 혹은 일반화이 다.48)

편견이란 특정집단 전체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합리적 **태도**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사고, 신념이 포함될 수 있으나, 행동은 아니다. 편견은 법 혹은 관습의 형태로 제도화된다.

차별은 두 실체를 구별하는 긍정적 과정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인간상호작용에서는 부정적 내포(內包)를 지닌다. 차별이란 특정집단 성원이란 근거에서 개인을 차별 혹은 부당 대우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는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 이유로 자원, 위신, 부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편견은 자주 차별을 수반하지만, 편견과 차별이 항상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편견 없이 차별이 있을 수 있고 차별 없이 편견이 있을 수도 있다. 라피에르(Richaard T. LaPierre)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 사실을 입증한다. 라피에르는 젊은 중국인 부부와 1930년 미국을 여행하면서 251곳의 호텔과 식당을 방문하였는데, 이 중국인 부부를 거절한 경우는 한곳뿐이었다. 6개월 뒤 그는 이 호텔과 식당에 편지로 중국인 고객을 받는냐고 물었더니 그 가운데 92%가 아니라고 했고 한 곳만 물론 받는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태도에 대한 언어적 발화가 행동의 바람직한 지표가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49)

⁴⁸⁾Mooney, Knox & Schacht, 2002. pp. 196-197.

⁴⁹⁾ Terry M. Dockery & Arthur G. Budeian, "Attitudes versus Actions": LaPerere's Classic Study Revisited,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989, 17(1), pp. 9-16.

3) 머튼(Merton)의 편견과 차별

머튼(Merton)도 이 같은 라피에르의 견해와 비슷하게 차별과 편견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였으며 이것을 표를 만들면 아래와 같다.

 편견?
 예
 하나오

 예
 a 편견을 지니고 차별하는 인간 (all weather bigot)
 b 편견을 지니나 차별하지 않는 인간(timid Bigot, closet Bigot)

 아니오
 © 편견은 없으나 차별하는 인간 (fair-weather liberal)
 d 편견도 차별도 지니지 않고 있는 인간(all weather liberal)

<표III-1>머튼의 편견과 차별

위의 표에서처럼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지닐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여성이 열등하다는 편견을 지닌 고용주가 여전히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편견없이 차별할 수도 있다(ⓒ). 인종집단 차별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압력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차별할 수 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차별하는 자유주의자와 편견을 지니나 차별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압력으로 이 같은 양면성을 지닌다.

머튼의 견해는 차별과 편견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50)

⁵⁰⁾ Farley, 2000. p. 56.

다. 문화이론

문화이론은 몇몇 편견을 광범위하게 퍼진 문화적 가치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1) 올포트(Allport)의 접촉가설(contact theory)

집단간 접촉의 결과에 대한 견해는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관론자인 섬너(William Graham Sumner)는51) 집단간 접촉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내집단이 지닌 우월감정의 호혜적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부분의 집단이 자신이 우월하다고생각하므로, 집단간 적대감과 갈등은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집단간 접촉은 의심, 두려움, 분개, 공공연한 갈등을 낳는다는 주장이다.

이와는 달리 2차 대전 이후 일부 접촉이론가들의 낙관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립되면 집단간 편견이 심화되며 함께하면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서로 고립되면 질병처럼 편견과 갈등이 커질 것이며,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함께하면 상호이해와 관심이 커진다는 것이었다.52)

올포트는 이 같은 낙관론을 의심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접촉이 활발하였던 미국 남부지역에 인종적 편견이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에 고전 적 해답을 제시하였다. 접촉으로 두 집단간관계가 필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

⁵¹⁾ Robert C. Bannister, ed., On Liberty, Society, and Politics: The Essential Essays of William Graham Sumner,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Press, 1992.

⁵²⁾ John F. Dovidio, Peter Samuel Glick, Laurie A. Rudman, On the Nature of Prejudice: fifty years after Allport , pp. 262-263.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5 : G. Allport,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 Addison-Wesley.1954.

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편견을 줄이기 위한 집단 간 접촉의 중요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집단간 접촉이 긍정적 결과를 낳기 위한 4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다.

첫째, 평등한 지위이다. 올포트는 동일한 집단지위를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두 집단이 평등한 지위를 기대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낮은 지위의 외 집단과의 접촉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능동적인 목표에 대한 정향적 노력을 통하여 편견은 감소될 수 있다. 운동팀은 가장 좋은 보기이 다. 다양한 민족집단성원으로 구성된 팀은 승리하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 며, 이 과정은 서로에 대해 품은 편견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집단간 협력이다. 공동의 목표 달성은 집단간 경쟁 없는 상호의존적 노력이 되어야 만 한다는 것이다. 세리프(Sherif)와 그의 동료는 1954년 20명의 남자아이 집 단을 선택하여 두 그룹으로 나누고 주립공원의 여름캠프에 참여하도록 해서 3 주 동안의 관찰을 통해 각 집단의 특유한 문화가 창조되는 과정을 끌어내 었다. 두 그룹의 아이들은 처음에는 자민족 중심적이었고 상호적대적이었으 나, 한 그룹의 힘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도입하자 두 그룹 사이에 조화와 협력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집단간 협력이 집단간 갈등과 적개심을 협력을 위한 긍정적 감정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53) 미국 의 경우에 1948년 상선 선원에 대한 인종차별이 사라진 뒤, 흑인과 백인 선 원이 함께 승선하고 항해를 함께 하면 할수록 이들 사이의 유대가 커졌다고 한다.54) 마지막으로 권위체, 법, 관습의 지원, 접촉에 대한 지원이다. 분명한 사회적 제재와 더불어, 집단간 접촉을 기꺼이 수용하면 할수록, 긍정적 결과 를 낳을 수 있다. 권위체는 수용의 규범을 지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정 부기관, 기업체, 군대, 학교 등에서 집단간 접촉이 더욱더 낙관적 결과를 낳

⁵³⁾ Muzafer Sherif 외, The Robbers Cave Experiment :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Middle Town : Weslyeyan University Press, 1988.

⁵⁴⁾ Brophy, the luxury of anti_Negro Prejudice, Public Opinion Quarterly, 9., 1946, pp.456-466.

을 수 있다는 것이다.55)

요약하면 민족집단간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접촉이나 접촉의 조건이 중요하며,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평등한 지위, 공동의 목표, 공식적인 인정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집단간 경쟁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커지면 편견은 커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민족집단간 협력이 이루어지면 편견은 줄어든다. 56)

라. 편견과 차별의 원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소수민족집단은 빈곤하며 자원에로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우리는 위에서 이 같은 편견과 차별이론을 검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몇몇 편견과 차별의 원천을 덧붙여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자문화중심주의이다. 자문화중심주의는 집단충성, 집단응집,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민족집단에서 완전히사라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민족 중심주의는 가끔 민족집단에 대한 격렬하며 무비판적 충성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집단에 대항하고다른 민족집단을 경멸하면서 편견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다. 우리 민족문화가 우수하다면 소수민족집단의 문화를 수용할 어떤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는 단일문화를 고집하며 좀처럼 다문화 자체를 거부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혐오의 형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

⁵⁵⁾ Thomas f. Pettigrew, Intergroup contract theory, Annu. Rew. Psychol. 1998. 49. pp. 65-85.

⁵⁶⁾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란 일반적으로 전(前) 사회관계와 사회관계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이해와 친숙성의 척도와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이해와 친숙성의 정도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는가에 대한 기념비적 연구로는 Emory S. Bogardus. "Social Distance and Its Origin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1925, pp. 216-226를 참고.

둘째로, 책임전가(scapegoating)이다. 책임전가 이론은 좌절이 편견을 낳는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편견은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 흔하게나타난다. 스케이프고트(속죄양, scapegoat)란 부당하게 어떤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비난받는 힘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책임과 비난을 자신이 아니라표적 개인 혹은 집단으로 돌리는 적대적인 사회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인종집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소수민족집단 성원은 쉽게 차별과편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수민족집단이 무력하기 때문이다.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집단성원이 다른 업종으로 진출하여 기존 다수민족집단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책임전가에 근거한 소수민족집단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심해질 수 있다. 같은 직종에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소수민족집단과 높은 임금으로 일하는 다수민족집단성원 사이에서도그러할 수 있다.

셋째로, 권위주의적 퍼스낼리티이다. 아도르노(Adorno)에 의해 창시된 권위주의적 퍼스낼리티 이론은 퍼스낼리티 타입 · 편견과 차별과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권위주의적 퍼스낼리티란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엄격히 동조하는 사람관 연관된 퍼스낼리티 특질을 뜻하는데, 이 같은 특질을 지닌 사람은 편견을 더 강하게 지닌다는 것이다. 보기를 들면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백인의 흑인에 대한 편견, 유대인에 대한 아랍인의 편견, 아랍인에 대한 이스라엘인의 편견 등이 있을 수 있다. 57)

마지막으로 고정관념(stereotypes)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회범주화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범주화란 집단성원에 공통으로 보이는 특성에 따라 사람들을 집단으로 범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쉽고 신속하게 민족집단, 나이, 성과같은 특징에 따라 그 성원을 범주화한다. 범주는 종종 고정관념이라고 하고,

⁵⁷⁾ Thomas J. Sullivan, Introduction to Social Problems, Boston: Pearson, 2006. p. 148.

고정관념이란 한 범주에 속한 개인은 그 집단과 연계된 모든 특성을 지녔다고 가정하는 단순화되고 엄격한 이미지를 뜻한다. 보기를 들면 서구에서 일부 사람들은 특정 개도국 출신의 노동자가 게으르고 속이고 더러우며 약하고 힘없고 정직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고 있어서, 특정 개도국 사람전체를 이 같은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고정관념은 편견과 차별에 기억하며, 특히 소수민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도록 한다.

1) 제도화된 차별(institutional discrimination)

차별은 개인적인 차별과 제도화된 차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개인이 특정집단의 성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혹은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며, 후자는 사회정책과 관행의 정상적인 작용과 절차로 인하여 소수민족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일어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도화된 차별을 정상이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채용시의 일정한 조건을 내세워 소수민족집단의 응시를 막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경찰채용에서 많은 부서들이 응시자의 키를 제한하자 평균키가 백인보다 작은 아시아계많은 사람들이 경찰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되었다.58) 제도는 보상하고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지니므로, 제도적 차별은 물지, 기회, 자원, 심리 그리고 심리적 만족감을 차별적으로 민족집단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순한 정책의 변동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가 차별과 편견을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다.

편견과 차별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문화적 원인 외에도 다른 잡다한 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일의 이론 혹은 단일의 편견과 차별 해결책은 찾아내기 어렵다. 인종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단일 원인을 찾아내려는 일은 어리석으나, 검토한 주요한 원인들은 편견과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⁵⁸⁾ Sullivan, Sociology, New York: Pearson, 2006. p. 147.

마. 편견과 차별의 결과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각양각색의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이 같은 차별의 주요한 부분으로는 교육차별, 고용차별과 민족집단 간 부의 격 차, 주거분리, 정치적 차별, 민족집단 성원에 대한 해코지, 증오범죄를 지적 할 수 있다.59) 교육에서의 차별과 편견은 결국 소수민족 아이들의 낮은 학 업성취도라는 결과를 낳고 따라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이들이 머물게 한다. 노동시장에서도 차별과 편견은 지속될 수 있으며,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 았을지라도, 다수민족성원을 소수민족 성원보다 우선 차별 채용할 수 있다. 주거지에서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집단 성원과 함께 거주하기 보다는 소수민 족 밀집지역에 주로 생활하기도 한다. **분리(segregation)**는 민족집단을 물리 적 · 사회적으로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집단은 강제 적으로 분리될 수 있으나, 자발적인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으로 이 주한 베트남출신의 37%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60) 외부적 강요가 아니라 방임 때문에 혹은 필요에 따라 특정지역에 소수민족집단이 밀집하여 거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외국인 혐오증과 같은 편견으로 소수민족성원은 이유 없이 폭언과 심리적 위협을 당하기도 하며, 증오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가장 극단적 형태가 **대량학살(genocide)**이다. 대량학살이란 한 민족집단에 의한 다른 민족집단의 체계적인 살해 등을 뜻한다. 보기를 들면 1994년 루 완다의 다수민족집단인 후투 족이 소수민족집단인 투치족을 공격하여 약 80

⁵⁹⁾ Mooney, Knox and Schacht,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Belmont: Wadsworth, 2002, pp.200-210.

⁶⁰⁾ Robert M. Jiobu, Ethnicity and Assimilation, Albany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8, p. 15.

만명의 투치족을 살해하였다. 대량학살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극단적 형태의 민족집단간의 차별과 편견의 결과이다.

차별과 편견은 인종집단 관계에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을 이루며, 특 히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더욱더 그러하다고 하겠다. 첫째 차 별은 사회계층에서 몇몇 집단을 불리한 위치에 점하도록 강제한다. 그래서 소수인종집단은 다수인종집단보다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훨씬 적게 지닐 수밖에 없고 이는 소수민족성원의 빈곤의 심화, 발병률의 증가, 수명의 단축 등을 낳는다. 이 같은 기회박탈과 열악한 사회지위의 고정화는 주기적으로 파괴적 폭력을 낳는다. 둘째, 차별과 편견은 차별당하는 소수민족성원 자신 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수민족성원들은 사회의 낮은 계층에 속 하는 자신에 대해 낙인화된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니기 쉽다. 부정적 자아개 념을 지닌 소수민족 집단 성원은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고 기존의 사회문 제를 범죄행위, 장기적 빈곤, 가정폭력, 어린이 방치 등을 통하여 더욱더 악 화시킬 수 있다. 셋째, 차별의 결과 소수민족집단성원과 다수민족 집단성원 은 때때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동체 성원사이의 신뢰를 파괴하고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얻는 공동체성원사이의 협력의 과실은 적고 사회발 전은 더딜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정치 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사회제도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차별과 편 견에 바탕을 둔 가치와 제도를 지닌 사회체계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61) 소 수민족집단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한국계 미국 인과 일본계 미국인은 불행한 과거식민지기억으로 상호반감 편견을 지니고 있다. 양자의 관계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계 미국인은 한국계 미국인을 비난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모티머 스너드 오브 아메리카(the

⁶¹⁾ Thomas Sullivan, 2006, p. 149.

Mortimer Snerds of America)로 간주한다고 한다.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 그리고 흑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사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62)

편견과 차별의 산물은 사회불평등이며, 그 희생자는 자신의 가치를 격하하고, 일탈적인 하위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의 규범적 가치를 배제할 수 있다. 빈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심화되고 사회체계의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문화사회와 연관된 문제는 정치이론가뿐만 아니라 일상시민 정치지도자와 정치활동자, 사회과학자, NGO, IGO 등의 마음을 끌고 있다. 즉 현대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볼 수 있는 심오한 이론적 관점과 통찰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다.

⁶²⁾ Robert M. Jiobu, 1988, pp. 15~ 16.

IV.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사회의 문제와 연관하여 우리는 소수민족집단과 다수민족집단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만 하는가란 당위적 의문에 직면한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다문화사회에서 우리는 함께 지낼 수 있는가? 란 의문은 21세기 대부분의 사회가 품지 않을 수없다. 우리가 싫든 좋든, 실현되든 되지 않든, 우리 사회는 다문화적이다. 이는 이민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의 문화가 현존하는 모든 사회에 공존하거나 상호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다.63)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와 싸우기 위한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예컨대 소수민족집단성원의 정치적 대표성을높이는 전략이다. 2010년 한국의 경기도 의원 도의원 비례대표 1번으로 몽고출신 결혼이민자인 이라씨가 배정되어 당선되었다.64) 법률상 소수민족에대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이민자에 대한 교육 전략도 적용되고 있다. 소수자배려제도(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차별 철페제도)도 예를 들 수 있다. 소수자배려제도는 과거차별의 결과를 보상하고 현재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전략이다. 학교와 공동체에서 다문화교육과정의 도입 및 학교현장에서 강제버스 통학(Busing, 인종집단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동을 거주지역외부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제도, 인종집단간 통합을 위한 목적을 지님) 제도 도입,노동현장에서의 다문화 훈련 등이 도입되기도 하며,소수민족집단의 빈곤타파를 위한 경제사회적 지원전략도 거의 대부분의 다문화사회에서 도입하여왔다.

⁶³⁾ M. Abdallah-Pretceille, & L. Porcher, Education et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6.

⁶⁴⁾ 조선일보, 2010년 5월 4일.

오래전부터 지속된 다수의 다문화사회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여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불완전하게만 해결하고 있다. 다양한 다문화사회에서 삶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도전적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동료시민의 문화적 차이를 다루어야만 하는 개인 그리고 상이한 문화를 지닌 시민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애쓰는 정부에 있어 그러한 것이다.

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문화적 사회에서 민족집단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으나, 그 가운데 다수의 다문화사회가 다원주의를 최적의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의 정의는 문화만큼 다양하며 일관성있는 정의를 찾기 어려워 종종 오해되기도 한다.

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 인간적 다양성

파레크는 다문화주의를 정치철학으로 다루면서 국가의 모든 기능은 다원주의를 고려하여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기능이 현재 국가가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동질성을 대변하며 시민은 영토구속적이기 때문이다. 65)

다원주의는 미국에서 소수 민족집단에 대한 동일한 유형의 공적 인정을 추구하는 전통으로서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였다. 영국과 몇몇 유럽지역에서는 다문화사회는 정치운동이라기보다 이

⁶⁵)Bhikhu Parekh,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Macmillan, 2000. p.336.

민에 의하여 등장하였고, 주로 유럽외부의 이민 즉 비백인의 다수 백인국가로의 이민에 의거하였다.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이민의 결과와 일련의 주변화된 집단 혹은 집단차별 자체에 초점을 두기도 하였다.66) 또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사회의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cultural competence),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 문화적 겸손(cultural humility), 이문화간 효율성(cross_cultural efficacy)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드레와 다니엘은67) 다문화주의를 인간 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자각과 지식을 높이는 데 개인 혹은 조직이 헌신하는 것으로, 이는 정중한 상호작 용과 효율적인 연결에로 전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 고 있다.68) 즉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나. 정의

다문화주의는 인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결에 근거한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은 신념과 행동의 체계이며, 이 체계는 조직 혹은 사회내에서 모든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들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용인하고 소중히 여기며, 포괄적인 문화맥락에서 이들이 계속 기여할 수있도록 고무하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며, 조직 혹은 사회 안의 모든 사람에게 이 같은 권한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⁶⁶⁾ Tariq Modood,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Cambridge: Polity Press, 2007. p.2.

⁶⁷⁾ M. D'Andrea, & J. Daniels, Exploring the different level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1), 1991, 78-85.

⁶⁸⁾ M. D'Andrea, , & J. Daniels, 1991. pp. 78-85.

다문화주의란 다문화사회 혹은 조직에서 사람 혹은 집단의 풍부한 다양성을 **인정**(recognition)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소수민족집단, 장애인, 여성은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았고 이들은 차별과 편견을 받았다.

인정은 **존중**(respect)과 함께하는 것이다. 존중은 개인의 통합성, 존엄성, 가치와 사회적 중요성(worth)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타자를 존경하고, 예절과 열정으로 대우하는 과정이다. 즉 존중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타자를 대우한다는 의미이다. 존중과 인정은 동일하지 않다. 한 집단의 존재를 인정함이 필시 이 집단에 대한 존중을 끌어내는 것은 아니다.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나 약자를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집단의 문화적 표현과 기여가 타당하다고 **인정** (acknowledge)함을 포함한다. 이것이 모든 문화적 기여가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 혹은 모두 관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문화적 기여와 표현은 다를 수 있으며, 어떤 문화적 관행은 다른 문화적 관행보다 사회개선에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사람들이 제공해야만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valuing)는 뜻이다. 단순히 이것이 다수민족집단, 혹은 권력자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거나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각 집단의 노력이 중요하며 소중하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집단의 사회와 조직에 대한 기여를 **고무**하고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소수민족집단 성원은 종종 공적 토론이나 사회참여에서 낙 담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기여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란 선입견 때문이다. 능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면에 권한을 지닌

다란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권한을 지님은 자신의 편견에 대해 자아비판적 태도를 지니게 하여 자신을 강화하고 타자가 자신의 최대 잠재력을 성취하 고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보기를 들면 소수민족 성원이 자 기파괴적 행동을 한다면, 모든 외부적인 도움은 쓸모없게 된다.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고 다양성속에서 통합을 이룰수 있도록 타자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능력, 다문화감수성, 문화적 겸손, 문화 간 효율성 등이다. 이 같은 능력은 우리 사회가 불신과 의심으로 보도록 가르친 소수민족 성원, 즉 타자를 잠재적 약탈자가 아니라 유익한 파트너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포괄적 문화맥락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많은 사람이 사회 혹은 교육에서 이 같은 포괄적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람이 다문화교육이 외래적 개념과 관념을 도입하여 국가의 역사적 경로를 벗어나게 하여, 국가를 역사적 전통과는 다른 국가로 화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집단 성원이든 누구이든 어느 누구도 방치하지 않는 포괄적 과정이다.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의 시대에, 다문화주의는 변화하는 다문화사회(다문화, 다민족, 다언어)에 새로운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69)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문화와 다수민족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화와 국경을 넘어선 세계적 차원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젠더, 장애, 나이, 생활스타일, 다른 관계

⁶⁹⁾ 이 정의는 Caleb Rosado,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1997. www.rosado.net에서 요약한 것이며 별도 주는 달지 않았다.

를 포함하여 정의한다면 그 범위는 인종 민족 집단에 한정하였을 때 보다 훨씬 넓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단일 문화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다문화사회로 이동함으로써, 우리의 사 고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다.70)

킴리카의 말처럼⁷¹) 다원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이론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규범, 제도, 원칙을 전제로 하며, 다문화주의는 이 같은 다원주의,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자식이므로, 자유 민주주의이론에서 유래하였다고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2. 다문화주의의 이상적 타입

(ideal types of multiculturalism)

다문화주의는 문화접촉과정이 발생하는 맥락 안에서 제시되는 정책과 제도적 관행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같은 사회구조는 의도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기도 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환영, 지지, 축하하기도 한다. 혹은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고, 방해할 수 있다. 보기로 동화, 분리, 소수민족의 주변화, 통합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혹은 단일문화 사회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변화시킬수 있다. 보기를 들면 정복 혹은 식민화, 또는 이민 등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명백하게 그 목적으로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에 적합할 수 있다. 비록 그 수단에 대한 논쟁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대체로 보면, 통합은

⁷⁰⁾ W. Edward Garighead, Chareles B. Nemoroff, The Corsini Encylopaedia of Psychology and Behavior Science. Hoboken: Wiley, 2002. pp. 984-985.

⁷¹⁾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소수민족 집단이 원래 문화를 지니고 그 문화의 핵심에 긍지를 지니면서 동시에 유치국가의 문화를 반영하는, 통일적인 보호 국가의 정체성을 품는 것이다.72) 서울, 충청남도에 사는 거주자가 자신을 한국의 시민으로 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이것의 자연스러운 보기이다.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통합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주의가 문화 차이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차이를 유지하며 이 차이를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문화주의 모델이분화되고 있다.

가. 문화 동화(assimilation) 모델

문화동화모델은 지배적 주류문화에 소수민족 문화가 점점 흡수되거나 일체화되는 모델이다. 20세기 인종관계를 연구한 사회학자들은 대부분의 소수민족의 운명이 동화일 거라고 가정하였다. 문화동화는 소수민족집단 성원이자신의 문화적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지배적 문화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 소수민족집단성원이 지배적 문화집단성원과 신체적 · 인종적차이가 있을지라도, 지배집단 문화를 성공적으로 체화하고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면 소수민족집단성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될 수 있다.

동화의 목적은 A + B + C = A로 표기할 수 있으며, 물론 A는 지배문화이며 B와 C는 소수민족문화이다. A는 헤게모니 문화라고 할 수 있다.73) 동화를 추진한다면 다양성은 무시되거나 현존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되

⁷²⁾ R. P. Throssell,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in S. Bochner ed., the Meditating Person, Camabridge: Schenkman books, 1982.

⁷³⁾ William M. Newman, American Pluralism, New York: Harper and Row, 1973. pp. 67-70.

며, 소수민족집단성원이 다수민족집단 문화 내에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정상(normal)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18세기 이민자의 다수가 형성한 미국문화는 영어, 영국법, 자유와 개인의 권리라는 기분적 문화가치 - 앵글로 색슨문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은 20세기 초 미국이민자들을 100% 미국인으로 화하도록 하기위해 자국문화 특히 비앵글로 색슨 문화를 포기하고 미국문화를 채택하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이민자는 영어 사용, 미국시민권, 미국제도에 대한 존경, 핵가족, 기독교적 전통에 흡수 되어야만 하였다. 앵글로 아메리카니즘이 사실상의 문화적 기준이었다.

다수민족집단이 자문화중심주의적이라면 이들은 자신의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신뢰함으로써, 소수민족집단성원에게 자신의 문화를 채택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동화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 질 수있다. 첫째, 행태적 동화(behavioral assimilation)이다. 이는 소수민족집단이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포기하고 지배문화의 언어, 가치, 규범, 상징 등을 수용하는 것이다. B국에서 A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A국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A국의 압도적인 종교로 개종하고, A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지식을 지니고, A국의 관습과 관행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둘째, 구조적 동화(structural assimilation)이다. 이는 소수민족집단이 소수민 족집단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나머지 사회와 동등한 조건에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C국에서 A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A국으로 구조적 동화를 할 수 있으나, D국에서 A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비록 행태적 동화에 성공하였을 지라도 구조적 동화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초기미국인이며 이 민자 중 최대인구를 점하는 독일계 이주자는 초기 미국이민자 가운데 최대 인구를 점했는데 이들은 미국사회가 동등하게 미국인으로 대우하고 수용하 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주한 중국계 미국인은 행태적으로는 다수민족집단 성원과 구별되지 않으나, 여전히 미국 주류문화는 중국계 미국인을 멀리하 거나 직장동료, 친구, 이웃, 결혼 파트너로 배척하고 있다. 이는 행태적 동화 가 구조적 동화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에 대한 동화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양쪽 모두에서 실패하 였다.74)

모든 사람이 문화동화모델을 다문화주의 모델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문화동화모델을 문화적 결함을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 이 유는 소수민족의 결함을 가족과 공동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즉 주류문 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문화동화모델은 문화선택의 자유에 근거한 다문화주의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의 전체는 아닐지라도 일부 로 수용될 여지는 있다. 또한 다수민족집단의 문화를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수민족집단 문화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75)

자비로운 다문화주의(benevolent multiculturalism)76) "보수적 다문화주의 (conservative multiculturalism)" 혹은 "공동 다문화주의(corporate multiculturalism)"는77) 다수민족집단 문화(물론 미국의 경우에 백인 중산계급의 문화재산) 동조와 특권이란 이데올로기에 근거한다. 보수적 다문화주의는 사회문제가 개인, 가정 혹은 공동체에 있다고 보면서, 동화는 주변화된 개인에게 기회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암시한다. 동화하지 않는다면 주변화

⁷⁴⁾ Mark E. Caprio, Japanese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0-1945,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2009 참고.

⁷⁵⁾ Anders Hanberger, Multicultural Awareness in Evaluation: Dilemma and Challenges, Evaluation 16(2), 2010, p.181.

⁷⁶M. A. Gibson, "Approaches to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Some concepts and assumptions", *AnthropologyandEducationQuarterly*, 7(4), 1976, pp. 7-18.

⁷⁷⁾ J. L. Kincheloe & S. R. Steinberg, Changing multiculturalism. Philadelphia, PA: Open University Press. 1997.

된 개인은 빈곤과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 인은 자국 언어를 포기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쓰지 않는다면 성공하거나 적 응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같은 보수적 다문 화주의적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invisibilizing knowledge), 주변화되는 지식 (marginalizing knowledge)은 특정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정보의 생략, 편견 혹은 특별한 지식의 선택적 혼합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78) 주변화된 지식의 보기는 단일민족문화를 기술하는 교과서에서 찾을 수 있다. 주변화된 지식은 첨가적 다문화주의(additive multiculturalism)와 유사하나, 79) 다양한 민족의 존재, 기여, 관점을 제거하거나 무시한다는 입장에서 단일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이론가들은 A국으로의 이민자와 이민 2 세대는 주류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A국의 공동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장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모든 A국 시민의 공동체감정을 보존하고 공동의 가치, 규범, 상징, 가정, 역사, 신념 등을 장려하며 이민자가 이를 수용해야만 A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이 지속될 수 있다.80) 보기를 들면 미국에서 아일랜드사람, 독일사람, 유대인 등은 모두 동화되어 수용되어야만 하였고, 그 조건은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은 미국적 정체성 - 본질적으로 영국적 정체성 - 아래로 가라 앉자 마자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수의 세계가 이들에게 개방되었다. 그이유는 이들이 백인이기 때문이었다.

⁷⁸⁾ King 2004

⁷⁹⁾ Cornbleth & Waugh, 1995.

⁸⁰⁾ Agnelina E. Castagno, Making Sen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 Synthesis of the Various Typologies Found in the Literartu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11(3), 2009. pp. 43-48.

나. 문화 융합모델(cultural amalgamation model)

문화 융합모델은 다수민족집단과 소수민족집단이 함께 결합하여 새로운 민족집단이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다수민족 문화집단 혹은 소수민족집단과는 구별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모델이다.

문화융합모델은 소수민족집단이든 다수민족집단이든 자신의 독특한 문화를 포기하게 한다. 하지만 동화모델과는 달리 문화융합모델은 모든 민족집단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코 한 민족문화가다른 민족문화를 희생해서 새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이는 A + B + C = D로 나타낼 수 있으며,81) A, B, C는 상이한 인종집단을 의미하여 D는 새로운 문화를 뜻한다. 소수민족문화와 다수민족문화가 수렴하고 융합되어 새로운 혼합문화로 변형되는 것이다.

문화융합모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평등이다. 이것은 다수민족집단으로 부터의 가치이다. 다수민족집단의 문화가 소수민족집단의 문화를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하다고 생각하며 다수민족집단의 민족간 (inter_ethnic) 관용과 평등이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둘째, 소수민족집단으로 부터의 가치인데 이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존중을 뜻한다. 다수민족집단이든 소수민족집단이든 모든 문화적전통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다양성이다. 이는 문화들의 수렴에서 나온 새로운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가치이다. 융합모델은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민족집단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같은 집단을 가로지르는 공통성(commonalitieis)을 강조하고 있다.

⁸¹⁾ Newman, 1973.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자(liberal multiculturalists)는 개인의 차이가 현 사회조건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상이한 개인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불충분한 교육적 • 사회적기회의 결과라고 주장한다.82) 이들은 우리의 주요한 목표가 평등한 기회의조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존 사회에서는 이 같은 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평등한 기회가 다양한 민족집단성원 모두에게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83)

문화융합모델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양한 민족집단이 자신을 다른 민족집단과 양립할 수 있어야하고 다른 민족집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문화융합모델에서 소수문화집단은 새로운 문화에 융합되지 못한 자신의 부분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문화가 융합된 전형적 국가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사회에서의 융합은 영국계미국인, 독일계 미국인,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같은 인종집단 사이에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나, 이것도 앵글로 색슨 문화 아래에서 그러하였다. 반면에 아시아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원주민, 유대인, 아일랜드계 로마 가톨릭 신자 등은 여전히 미국문화에 융합되지 않고 있다. 이 문화는 미국문화에 예속적인 문화로 남아 있다. 문화융합모델은 이 같은 현실을 잘설명하지 못한다.

다. 문화변용모델(문화이식모델, acculturation model)

이 모델은 동화모델과 관련이 깊으며, 한 문화집단이 다른 집단의 문화를

⁸²⁾ Kinchleloe and Steinberg, 1997.

⁸³⁾ Agnelina E. Castagno, Making Sen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 Synthesis of the Various Typologies Found in the Literatu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11(3), 2009. pp. 43-48 /p. 45.

채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원래 문화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과 다수민족집단이 소수민족집단에 전형적인 패턴을 채택할 수도 있는 점에서 문화동화모델과는 차별된다.

문화이식모델은 가족과 사회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행동과 기능에 있어 인지, 감정, 행동, 지각, 이데올로기, 신념, 언어사용, 다른 양상에도 영향을 준다. 84)

이중문화주의란 양 문화로 부터 일어난 특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중문화주의는 경험적으로 가장 건강한 문화변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중문화주의적 전략을 채택하는 문화변용의 개인은 더 나은 심리적사회문화적 적응을 하며, 문화변용전략이 긍정적인 적응과 본질적 관계가 있으며 통합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 주변화의 가능성은 가장 적었다'.85) "이중문화적 정체성은 이주자에게 가장 적응적인 정체이며,"86) 이중문화주의는 일반적이고 개인에게 상당한 도움을 준다".87)

정리하면, 소수민족 집단 이주자는 이민온 국가의 문화와 사회에 완전히 참 여하면서 자신의 문화유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민자가 문화변용을 이루어야하는 것은 자유주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보가더스는88) 민주적 문화변용이 통합(integration)이라고 하면서 그 특징을 열거하고 있 다. 1) 각 문화의 대변자는 다른 모든 문화를 존경심을 지니고 그 역사와 장점에 의거하여 보며 2) 자신의 것과 다른 문화패턴을 규칙으로 수용하도

⁸⁴⁾ I. Cuellar & F. A. Paniagua, Handbook of multicultural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iverse populations. San Diego: Academic Press. 2000.

⁸⁵⁾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1997. p 24.

⁸⁶⁾ Phinney, 2003. p. 74.

⁸⁷⁾ Trimble, 2003, p. 10.

⁸⁸⁾ Bogardus, 1949, pp. 127-128.

록 어느 누구에게도 강제해서는 안되며 3) 이는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적 특질을 발전시키도록 고무함을 포함하고 국가생활에 문화적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4) 민주적 문화변용은 공동체에서 독특한 사람으로 이민자가 그정체성을 오랫동안 지니 도록 하며, 5) 이민자가 자신의 고국의 관습을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민주적 문화변용은 이민자의 역할을 두 문화 사이의 연결자로 품위를 살려 주며 6) 민주적 문화변용의 본질적 양상으로서 문화적다원주의는 경멸적인 이 같은 인종적 고정관념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킴리카는89) 자유주의는 인권에 바탕을 두며, 자유주의는 소수 민족집단권를 포함하여 특히 세계의 다문화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문화변용연구는 통합이 유익하며 200개미만의 국가, 600개의 살아 있 는 언어, 그리고 5000의 민족집단이 존재하는 다문화 세계 안에서, 이 같은 통합은 가능할 수 있다.90)

만약 소수민족성원이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학교 혹은 새로운 문화와 언어로 대체하면 동화가 진행된다. 소수민족집단성원이 학교 혹은 새로운 문화를 위해 자신의 문화/유산을 배척할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거절(격리)이 발생한다. 소수민족집단 성원이 자신의 문화/유산도, 학교/새로운 문화/언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문화상실 실문화(失文化, Deculturation)가 발생한다. 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가족 문화변용의 결과를 약술하면, 먼저 부조화 문화변용(dissonant acculturation)이 있다. 이는 소수민족집단 성원의 아동이 이주국의 언어와 문화의 가치와 신념을 배우고 자신의 문화를 부모와는 다른 빠른 속도로 상

⁸⁹⁾ Will Kymlicka,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 Clarendon Press, 1995.

⁹⁰⁾ Floyd Webster Rudmin, Debate in Science :The Case of Acculturation, University of Tromso, Norway 2006. December.

실할 때 발생한다.

조화 문화변용(consonant acculturation)이란 소수민족집단성원의 부모와 아동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이주국의 언어와 새로운 문화를 학습할 때

| | | 전통문화의 가치가 존재하고 유지되는가? | |
|------------------------------|-----|----------------------------------|------------------------|
| | | 예 | 아니요 |
| 더 큰 사회와 긍정적 관계를 추구하는가? | 예 | 통합 integration | 동화 assimilation |
| | 아니요 | 거절(분리) rejection(segregation) | 실문화 (deculturation) |

<표 IV-1> 문화변용에 관련된 주요한 2 가지 질문

출처: Berry(1976, p. 181)

발생하는 것이다. 선택 문화변용(selective acculturation)은 제1세대 혹은 제2세대 이민자가 스스로 주류사회에 통합하면서, 가족과 소수민족집단 공동에 임베드(embed)되어 부모의 문화를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같은 선택문화변용은 인종차별에 대한 보호망역할을 하기도하고 사회상승이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소수민족의 프라이드, 소수민족문화의 보존 같은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분열 혹은 국가통합의 저해 등의 이유로비판받고 있다.

문화변용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문화변용과 정을 겪는 결과로 인하여 행동의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약간 병적일 수 있고, 개인 혹은 집단에 간섭할 수 있으며, 행동반응은 일탈행동, 다양한 일탈적인 심리 징후 등 다양하다.

라. 문화변형(문화이식, transculturation)모델

이민자가 유치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때, 그 이민자는 유치국의 문화와 가치에 신속히 적응하면 그 결과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관념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민자가 자신의 민족유산을 완전히 망각하고 유치국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이주자가 자신의 문화를 이식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쿠바의 인류학자인 오르티즈(Fernando Ortiz)는 문화변형(trans culturation)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 용어는 상호교통적이며 중립적인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91) 오티즈는 쿠바의 아프리카사람과 유럽사람사이의, 호혜적인 이문화간 적응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변형 개념을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항상 일방적인 사회화를 통하여 이민자가 자신의 문화를 다수민족집단의 문화방식으로 적응시키는 동화(혹은 문화변용)라는 용어는 문화변형(transculturation)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문화변형(transculturation)이란 접촉하는 두 문화가 주고받는 체계, 그리고 서로의 방식에로의 적응체계에 참여하는 호혜적 과정이며, 종종 평등한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을지라도, 새로운 문화현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3 대위법적 과정의 도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문화변용 혹은 분화획득(cultural acquisition)이며, 둘째 실문화(deculturation) 즉 부분적인 문화파괴, 빈곤과 상실이며, 셋째 신문화(neoculturation) 혹은 새로운 문화현상의 등장이라는 것이다.

⁹¹⁾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2007, Ortiz, Fernando (1995),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Trans. Harriet de Onís. (Original Spanish edition published in 1940. Original translation by Onis published in 1947, New York: Knopf)

신문화에서 보면, 문화교환은 상호의존적 과정이며, 다양한 집단이 서로 배우고 자신의 독특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민족집단들이 풍요롭게 혼합되어, 세계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오티즈의 문화변형 개념을 발전시킨 우루과이의 라마(Angel Rama)는 문화변형이 문화비판의 근본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문화변형은 결코원문화로의 회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통을 급진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92)

비록 문화변형모델에 대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문화변형모델은 한 문화가 받고 있는 것에 답례로 무엇을 항상 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변형 모델은 문화축적 모델을 배척하고 있어서 특질이 단순히 축적되는 집합체도 아니고, 모자이크 같은 것도 아니며,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새로운 문화현실 을 낳을 수 있다. 93)

마. 문화공존모델(coexitence model, 문화적 다원주의 모델)

문화공존모델은 통합을 최소화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위에서 검토한 동화모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수민족집단이든 다수민족집단이든 집단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유하고 개별적인 인종 집단과 함께, 서로의 차이에 스스로 적응하는 모델이다. 같은 사회구조 안에서 상이한 상징적 세계관들을 포함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적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도 아래와 같이

⁹²⁾ S. Spitta, Between Two Waters: Literary Transculturation in Latin America, Houston: Rice University Press, 1995, p. 10.

⁹³⁾ Robin W. Fiddian, Postcolonial Perspective On the Culutresof Latin America and Lustophone Afric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2000. pp. 149-150.

밝히고 있다.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함께 살려는 의지와 더불어 다원적이고 다양하며, 역동적인 문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과 집단의 조화로운 상호 작 용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 단결, 시민 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한다. 그 러므로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명백한 정책 표현이다. 민주 체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문화 다원주의는 문화 교류와 공공의 삶을 지탱해주는 창조적인 역량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제2조)"

각각의 민족 집단정체성은 문화적 풍요와 다양성 안에서 공존하고 발전할수 있다. 즉 문화적 차이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권리를 지니고, 차이에 대한 관용은 휴머니즘에서 비롯되며, 만인의 것인 문화는 하나가 아니라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은 민주적 시민개념의 핵심이다. 문화에서 중립적이거나 동화적인 것은 없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공존모델은 소수집단의 문화가 다수민족집단의 문화로 흡수되거나 동화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소수민족집단에 대한 보호와 권리부여는 소수민족집단의 문화가 다수민족집단의 문화와 나란히 살아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소수민족집단을 강화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소수민족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닐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독특한 전체(unique whole)를 형성할수 있다.

문화공존모델은 동화모델, 분리모델을 배척하면서 다양한 민족집단 사이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전체로서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 다. 하지만 다수의 이론가는 문화공존모델은 이상형 문화모델에 지나지 않으며, 즉 바람직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결코 문화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한다. 일부는 다수민족문화에 동화 혹은 적응하지 않는 소수민족문화를 격리시켜 다수민족의 문화전통과 유산을 지키는 편이 사회통합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94)

그렇지만 문화공존모델은 분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차별과 편 견의 결과로 인한 소수민족문화의 강제분리를 비난할지라도, 소수민족이 자 신의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인 분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 모델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소수민족이 구별되나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제한된 다원주의로 나타나며 여기에는 세 유형의 장애물이 있다. 하나는 소수민족의 일부가 자신의 민족들로 이루어진 고립지역에서 살기를 원할 수 있다는 점, 사회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관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동일한 사회적지위를 지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문화를 보는 렌즈로서 문화동화모델, 문화융합모델, 문화변용모델, 문화변 형모델 그리고 문화공존모델을 검토하였는데 이 모델들은 모두 이상형 모델 이며 다문화현실을 부분적으로만 반영하고 있다. 그래도 이 모델은 우리가 다문화사회, 다문화사회의 문제, 다문화사회정책을 평가하고 확인하고 이해 하는 데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바. 다문화주의 은유모델(metaphor model)

⁹⁴⁾ Kevin Ryan, James M. Cooper, Those Who Can, Teach, Boston: Wadsworth, 2007, p.61.

다문화주의 은유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이 은유모델을 다문화사회에 적용함으로써 다문화주의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1) 도가니 모델(the melting pot model)

장윌(Zangwill)의 희곡 『도가니, the Melting Pot(1908)』은 러시아계 이민자 가족의 삶을 그리고 있다. 러시아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살해되는 비극을 겪은 이 희곡의 주인공 데이비드는 '미국은 거대한 도가니(the Melting Pot)이며, 모든 유럽의 인종이 녹아들어 재형성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희곡에서 데이비드는 미국인이 되기 위해 유대교와의 유대를 포기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미국을 쇠붙이를 녹이는 그릇인 도가니에 비유한 다문화은유모델은 그의 희곡에서 시작되었다.95)

보크너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가니 모델에서는, 모든 인종집단 - 소수민족 이민자를 수용하는 압도적인 유치국 인구를 포함하며 - 이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양보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정의상 도가니모델은 기존 특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혼합모델 이기 때문이다. 사실, 도가니 모델(the melting pot model)에 의거하여 명백히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에서 조차, 다양한 요소들이 유지되지 못하거나 결과에 동일한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 새로운소수민족 이주자보다 유치국인구가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므로, 항상 유치국의 요소가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도와 정책에도 불구하고 동화 압력이 있어서 소수민족 이주자들은 특히 제2세대는 동화에

⁹⁵⁾ Charles Hirchman, America's Melting Pot Reconsidered, Ann. Rev, Sociol. 1983, 9, pp. 397-423.

⁹⁶⁾ A. Furnham & S. Bochner, Culture shock. London, England: Methuen, 1986.

저항할 수 없을 수 있다.

2) 모자이크 모델(the mosaic model)

작은 색유리, 돌 혹은 다른 자료로 된 부분들을 합하여 이미지를 창조하는 예술이 모자이크이므로 모자이크 모델은 화려하고 창조적으로 디자인 된 다문화사회를 제시할 수 있다. 모자이크의 작은 부문들이 의미하는 바처럼, 모든 요소들(인종집단)은 그 원래적 정체성의 핵심 특성을 보유하나 결합과 연결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가 그 부분의 총합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이다. 모자이크 모델은 콘크리트 벽 모델 혹은 벽돌모델과는 대립된다.

하지만 모자이크 모델에는 이론적 실천적 어려움이 있다. 동화주의적 압력은 뿌리뽑기 어렵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자이크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소수민족문화와 다수민족문화를 연결하는 사회적 기술을 사회성원이 과연 지니고 있는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각각의 문화가 얼마나 '느슨 (loose)' 혹은 '밀접(tight)'하게 교차하는 가에 따라 다문화 현실은 각양각색이다. 따라서 현재의 맥락에서 문화가 압도적인 다수 인종에로의 동화압력에 직면하여 자신의 성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문제도 있다. 몇몇 집단의 가치, 신념, 그리고 관행이 다른 집단의 규범과정면으로 충돌 할 수 있다. 그래서 응집적인 사회관념과는 양립할 수 없는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자이크 사회 운동은 공동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장점이 있으나, 공동의 정책을 작성하고 상이한 조각(소수민족집단)들의 차이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일은 쉽지 않다.

3) 샐러드 그릇 모델(the Salad Bowl model)

샐러드 그릇 모델은 장월(Zangwill)의 도가니 모델에 반하는 모델로, 모자이크 모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즙이 많은 샐러드(a succulent salad)에 들어가는 각각의 재료는 전체 샐러드 맛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유에 샐러드 그릇모델이 근거하고 있다. 샐러드 재료 중에 크루톤, 양배추, 토마토를 빼면 원래 맛이 사라지고, 버섯, 후추 혹은 샐러드 드레싱을 빼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문화사회에 이 은유를 적용하면, 다문화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같은 다양성이 다문화사회와 국가의 독특한 풍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즉 다문화사회에서 샐러드의 재료와 같은 각양각색의 문화를 단일의 문화로 수렴하지 않고 배치함으로써, 샐러드의 각 재료가 자신의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각 문화가 자신의 특질을 지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사회가 개별적이고 순수한 소수민족이든 다수민족이든 자신의 문화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스튜 모델(the stew model)

스튜란 고기와 채소 등을 넣어 국물이 약간 있게 해서 천천히 끓인 서양식 요리이다. 스튜모델은 각각의 재료가 전체 결과에 중요한 것을 제공할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한 재료를 빼면 전체결과가 부족할 수 있다. 즉 각각의 미시문화(microculture)가 특별한 것으로 제시되며 이는 다문화사회의핵심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골자이다. 따라서 소수민족 집단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문화사회에 살면서 이상형의 모델을 바람직한 목표로 삼고 있지

만,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은유모델은 다원주의의 존재를 포괄적 세력으로 지지할 수 있는 몇몇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고하겠다.97)

5) 무지개 연합 모델(rainbow coalition model)

무지개 연합모델은 미국의 흑인목사 잭슨(Jesse Jackson)이 사용한 정치사회 운동 슬로건에서 비롯되었다. 그 배경은 소수민족집단이 무지개처럼 단결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모델을 다문화주의에 적용하면 각양각색의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 인종 출신인 사람들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무지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었다. 다문화사회는 모든 문화가 지닌 양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무지개 연합모델은 각각의 문화에서 각 특징은 고무되고 다른 문화집단에 의해 인정을 받아야한다는 다문화적 사회의 이상을 그리고 있다. 무지개연합을 통하여 문화적 단편들 을 결합하고 통합하는 정책을 옹호하기도 한다.

무지개연합에서도 문화적 단편 즉 모든 소수민족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의 분리주의 운동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다종교 교육은 모든 종교에서 대한 존중을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몇몇 자유주의적 기독교주의자는 자신의 종교가 많은 타당한 가능성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행복해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교리의 진실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다.%)

⁹⁷⁾ Paul Federsen ed., Multiculturalism as a fourth for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99. p. 25.

⁹⁸⁾ Chris Brow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Palgrave, 2001, p. 205.

3. 다문화주의 : 비판

다양성은 중요하며, 우리의 지평을 넓히고 상이한 가치, 신념, 생활스타일을 비교하게 하며 이 같은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차이가 무엇이든 다문화사회의 개인은 정치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고 존중되어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가. 다문화주의 비판

하지만 다문화주의 자체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9)

첫째, 다문화주의에 대한 급진적 비판이다. 이는 다문화주의의 수단과 목적을 칭송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종차별과 편견의 지속, 소수민족집단성원의 높은 실업률, 예산부족, 이주자들이 직면한 문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보다 더 많은 정부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민족집단 성원 보다몇 배 어려움에 처한 소수민족집단을 위해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주의적이며 휴머니즘적 비판이다. 이는 문화가 동태적이며 자체 추진력이 있고 세계체계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체계에서는 최선 의 문화만이 생존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은 조상의 가치 와 정체성에 대한 향수적인 애착을 영속하며 하나의 세계체계의 부분으로서 일국에로의 성공적인 적응을 방해한다. 위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할례

⁹⁹⁾ Anthony H. Richmond, Multiculturalism and the Millenium : Global Perspective, Refugee, Vol. 15, No. 6, 1997, pp. 8-10를 요약한 것임.

와 보편적인 인권해석에 위배되는 다른 행동에 비판적이다. 소수민족 문화의 편협함은 더 넓은 인류애의 감정 및 인권이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 통일이라는 더 넓은 감정이며, XX계 자국민에서 XX계를 없애야 한다. 이민자와 그 후손이 집, 종교기관,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언어와 문화를 향유해야만 하나, 정부가 이들을 보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충성심의 분열, 혹은 분리주의적 열망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주의적 비판은 명시적이라기보다는 묵시적이다. 이 학파의 이론가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에 필요한 자원을 요구하는 특수한이익집단이 무척 많이 있으며 그 가운데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된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로서 국가관념을 조장하고 공동언어와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근본가치에 대한 합의를 낳을 수 있고이 같은 가치는 강제가 아니라 도덕적 설득을 통해 강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보기를 들면 민족주의적 관점은 어떤 외향적 소수인종집단의상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유럽국가에서 터번 히잡(hijab)을 허용하지않고 있으며, 스위스는 회교 첨탑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쳐 가결하기도 하였다.100) 단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의 동조는 나치즘 혹은 반유대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다.

넷째, 신보수주의적 비판가는 다문화프로그램을 불필요한 정부통제의 다른 보기로 간주한다. 다문화정책과 다문화 프로그램은 자유시장원칙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다. 차별철폐제도는 긍정적인 차별이며, 대학교 입학, 고 용, 승진의 유일한 조건으로서 '업적' 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에 대 한 고용프로그램도 젊은이에 대한 차별이 한 형태라고 공격을 받을 수 있 다. 따라서 국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다문화프로그램은 부채에 시달리는 정 부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사치로 간주할 수 있다.

^{100) 2009}년11월30일, 연합뉴스

다섯째, 객관주의적(objectivist) 관점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훨씬 강한 역풍이다. 특히 학교, 대학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 다문화주의다. 이 관점의 비판가들은 다문화주의를 정치체계를 파괴시키기 위해 정치체계에 사려 깊게주입한 '바이러스'로 기술하고 있다. 다문화 연구 분야의 증가, 다문화 정책과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산은 다수민족문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 이들은 자신이 인종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언어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객관주의자라고 강조한다.

여섯째, '부식(corrosion)' 테제이다. 이 테제는 다양성은 신뢰의 몰락을 가져다 군다고 한다. 다양성과 사회자본의 감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다문화정책을 채택하면 사회신뢰와 연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공통성(commonalities)보다는 차이를 계속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주의는 사회신뢰의 약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여를 통한 전체사회 노력에 대한 지지 감소를 초래한다.101)

나. 다문화주의의 부정적 결과

몇몇 비판가들은 다문화주의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교육은 소수민족 학생에게 주변적인 교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게 함으로써, 이들에게 해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치국언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빼앗김으로서, 다문화교육정책은 소수민족 아이들의 사회적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정치적 불화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민족간 갈등을 낳을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와 대학이 국가적 경험의 공동요

¹⁰¹⁾ Will Kymlicka, Keith G. Banting,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ic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155.

소를 강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류의 비판가는 민족간 인종간 조화는 단순히 불평등을 유지할 뿐이라고 한다. 소수민족집단과 다수민족집단 사이의 평등을 성취하기위해서 갈등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다문화주의 비판가들은 다문화정책이 문화상대주의를 고무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모든 문화와 문화적 관행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면 일국의 뿌리 깊은 가치에 위배되는 소수민족의 문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가 문화적 상대주의를 고무해서 다수민족집단이 혐오하는 가치와 관행에 대한 존중을 고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2) 모든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며 문화에 대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평등과 다양성에 가치를 둘 수 있으나, 모든 인간이 문화에 대한 능력을 지닌다는 사실이 결코 모든 문화가 평등하다는 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일반적인 지지와 단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현재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미래에 다문화사회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다문화를 벗어난 단일문화사회로의 회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정책은 감정적이고 복합적 양상을 지니고 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의 주요한 부분을 점할 것이다.

¹⁰²⁾ Robert J. Brym & John Lie, Sociology, Toronto: Wadsworth, 2003,pp. 74-75.

V. 마무리: 이문화(異文化) 이해 대처능력과 다문화정책

다문화사회에서도 정책과 프로그램이 당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목적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며,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정책결정을 지도할 수 있는 평가 원칙에 대한 일반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

종종 다문화정책은 **문화적 질투**(cultural jealousies)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질투의 원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특히 행복, 성공, 평판, 재산 등에서 다른 민족집단 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했을 때, 더욱더 그러하다. 다문화정책(the policy on multiculturalism)은 실현가능하고, 수용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시 정의될 필요성은 커질 수 있어서 이는 더 많은 다문화주의 연구와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지엽적인 문화지식 혹은 단편적 연구에서 도출되기는 어렵고,103) 한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문화능력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의 경계를 설정하는 다문화사회의 한계 내에서 우리의 공동의 가치, 태도, 목표, 신념, 사회적 기대, 기술, 행동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가 검토한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의 결정자와 다문화정책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반 시민이 다문화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책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로 이문화이해 대처 능력(cultural competency)이 필요하다.104) 다문화사회는 다문화

¹⁰³⁾ Gilles Paquet, Governance Through Social Learning, Ottawa: University of Ottawa, 1999, pp. 130-134.

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1.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cultural competency) : 정의와 의의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의 문화적 필요를 다루는 종사자가 이용하는 특정한 일련의 지식, 기술,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스터 하는 것"105)

"상이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respect and value different cultural identities,)"106)

"이문화 상황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 기구 혹은 전문가 집단 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련의 적합한 행동, 태도 정책(A set of congruent behaviors, attitudes, and policies that come together in a system, agency, or among professionals that enables effective work in crosscultural situations"107)

"모든 문화, 계급, 인종, 민족적 배경, 종교 혹은 신념을 지닌 사람들에 정 중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체계와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여, 이는 개인, 가

Richard H. Dana & James R. Allen,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in a Global Society, New York: Springer, 2008, p. 44~ 56.

¹⁰⁵) Lum 2005, p. 4

¹⁰⁶⁾ David Prideaux, Cultural Identity and Representing Culture, Medical Education, vol 35. no. 3. 2001. pp.186-187.

^{107) &#}x27;What is Cultural Competency', The Office of Minority Health, USA and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USA.

족, 종족,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존 엄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은 타자의 문화적 힘을 학습하고 그 독특한 능력과 관점을 우리의 삶으로 통합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108)

이외에도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간추리면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이란 다문화 맥락에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또한 개인, 기관 체계가 통합되고 자신과 타자에 대한 가정, 편견, 지식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켜 그 인식이 다문화적 환경에서 존경스럽고 효율적으로 작용하게 하는 과정이다. 즉 각 집단의 가치와위신을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능력에는 다음과 같은 기술과 태도가 포함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의 문화코드를 이해하고 자신이 현실을 지각하고 타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이같은 코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신의 문화환경에서 자신이 발전시킨 편견과 판단방해(blinders)에 대한 자각이 포함된다. 둘째 다른 민족집단이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다. 이것은다른 민족집단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성, 결혼, 가족과 친족 공동체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간문화의 다양성을 명백히 인지하고 인식하는 겸손의 태도이다. 어떤 단일 문화도 인간이 되는 최선의 방법 혹은 행복추구의 최선의 수단이될 수 없다. 넷째, 다른 민족집단의 문화를 방해물 혹은 장애로 보는 대신에가치있는 자원으로 보고, 다른 민족집단의 가치와 신념을 고려할 수 있어야한다. 109)다문화능력은 개인의 행동,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문화가 미치는 영

¹⁰⁸⁾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Wendy R. Uhlmann, Jane L. Schuette, Beverly Yashar, ed. A Guide to Genetic Couselling,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2009. p. 333.

향을 평가할 수 있게 하며 , 다문화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합한 개입전략 (intervention strategy)을 제공할 수 있다. 다문화능력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의 필요성

다문화사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문화 사회성원의 문화적 필요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능력은 다문화사회의 부정적 결과, 고통, 무질서를 줄이고 다문화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회복 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가.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 모델

1) 크로스의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모델(cultural competence model)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모델은 조직 수준에서 다양한 단계를 통하여 문화능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기술한다. 크로스(Cross)는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을 '체계, 기관, 혹은 전문가집단에 있어 함께 어우러지며 이 같은 체계, 기관 혹은 이 전문가집단이 이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일련의 공유적인 행동, 태도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110) 이 모델의 주창자들은 문화능력을 문화적 파괴에서 문화적 숙달에 이르는 연속으로 보고 있어서, 이를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 연속모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모델의

¹¹⁰⁾ Terry Cross, B, Bazron, K. Dennis & M. Isaacs Towards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Volume 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1989, March, p. v-viii.

문화능력의 연속에는 여섯 가능성이 있다.

(1) 문화적 파괴(cultural destructiveness)

문화적 파괴는 "차이를 보고 짓밟아 버려라(see the difference, stomp it out)"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정집단의 문화를 파괴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며,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므로 하나의 존재방식만을 인정하고 다른 모든 문화적 접근을 부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파괴적 태도, 정책, 관행이 포함된다. 즉 자신과는 다른 문화를 부정하고, 얕보는 것이다. 강제동화, 정복, 다수민족집단만의 권리와 특권등과 관계가 있다.

이문화이해 대처능력 모델에서는 문화를 문제로 보고, 문화가 억압되거나 파괴되면 사람들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들이 주류문화 와 더 비슷해져야하고, 한 문화가 우월하며 '작은' 문화는 발본색원해야한다 고 가정한다.

문화파괴의 보기를 들면, 학교에서 이민자의 모국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영어전용정책, 특정인종집단을 뽑아내는 의복정책 등이 있다.

(2) 문화적 무능(cultural incapacity)

문화적 무능은 "차이를 보고 틀렸다고 생각하라(see the difference, make it wrong)"라는 것이다. 개인 혹은 조직은 상이한 집단에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파괴적인 것은 아니므로, 다양한 문화집단 성원을 도울 수 있는 능력부족과 관련이 깊다. 무지와 근거 없는 두려움이 종종 이 같은 문제의 토대이며, 홀대가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할 때를 알지 못하여 이 같은 사태를 영속화한다. 즉 문화적 무능은 인종주의적이거나 억압적인 정책을 강제하거나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수민족집단에 있어 극단적으로 편견을 품은 집단과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

다. 즉 차별적인 고용관행, 알아채기 어려운 달갑지 않은 메시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낮은 기대 등이 문화적 무능을 야기할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적 가치의 우월성을 고양하고 다른 문화를 억압하는 행위이다.

문화적 무능은 문화적 자각과 기술이 부족한 하나의 동질적인 사회에서 양육되며, 이러한 사회성원은 이들이 결코 의심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민족집단의 인종적 우월성을 믿고 고정관념을 유지한다.

(3) 문화지(cultural blindness)

문화적 무지는 '차이를 보고, 차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행동하라(see the difference, act like you don't)'라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나 혹은 문화들 사이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편견 없는 철학 - 내가 피부색을 보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는 같다는 철학 - 을 표명하면서 문화가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믿고, 다수민족 문화에 근거한 소수민족 도움 방법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적 힘을 무시하고 동화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문화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하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주장이다. 이는 민족중심주의의 성향과 관계가 있다. 즉 문화간 차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어떤 차이의 인정도부정하는 행위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타인을 자신의 문화에 의거하여 고찰하고 모든 사람이 꼭 같다고 주장하며, 문화가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우리 모두가 같다고 믿는다. 따라 서 모든 인간은 인종 혹은 다른 특성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대우받아야만 한 다.

(4) 문화적 예비능력(precompetence)

문화적 예비능력(precompetence)는 "차이를 보라, 그리고 부적절하게 반응하라(see the difference, respond to it inappropriately)'라는 것이다. 이것은다른 문화집단과 상호작용할 때 자신의 기술의 한계 혹은 조직의 관행의 한계를 인지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사회 성원에 봉사하는데 약점을 깨닫고 특별한 개선을 위한 시도를 하라는 것이다.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개인과 집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차이의 수용과 존중, 문화적 평가, 계속적인 전문적 직업 능력 발달, 조직의 적응과 관계가 있다. 즉 지식, 경험,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문화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행위이다.

정리하면 문화적 예비능력은 다문화사회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인지하고 차이에 대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 는데 자신의 결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감수성(cultural sensitivity)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5)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cultural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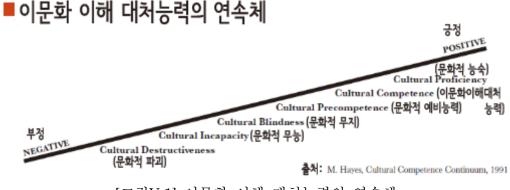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은 '차이를 보라 그리고 차이를 만든 차이를 이해하라(see the difference, understand the difference that difference makes)'이다. 이 능력은 차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이해에 관한 자기평가를계속하게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봉사모델에 적응하고, 다문화 공동체로부터 충고와 조언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다른 문화집단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다른 문화집단과상호작용하여, 자신의 지식과 자원을 확대하고 결국 자신의 관계적인 행동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이문화 이해대처능력이라 함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다른 문화와 관련하여 자신의 문화의 영향을 수용하고 문화가 교차할 때 차이의 동태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이문화간 상호작용(보기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의 요소를 기꺼이 검토하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6)문화적 능숙(cultural proficiency)

문화적 능숙은 '차이를 보라 그리고 궁정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고 적응하라(see the difference; respond positively, engage and adapt)'라는 것이다. 이는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을 알고 다양한 문화집단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행위이다. 즉 문화 사이의 차이를 공경하고 다양성을 편익으로 보고 다양한 문화집단과 박식하고 정중하게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문화적 능숙은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선다. 능동적으로 문화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고 지 식을 추구하고 전달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수준이다.



[그림V-1]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의 연속체

이는 결국 높은 수준의 문화이해대처능력을 어떻게 배양할 것인가의 문제 에 직결된다.

2) 캠피나 바코트(Campinha_Bacote, 2007)의 모델

캠피나 바코트(Campinhan_Bacote) 모델은 **이문화이해 대처능력**을 화산(a volcano)에 비유하고 있다. 문화적 욕망이 분출할 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화적 조우(遭遇)를 추구하게 하며, 문화적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문화적으로 감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게 하게 한다는 것이다. 문화적 자각 과정에 겸허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이해 대처능력의 형성과정에 진입하기를 원하는 욕망을 낳게 한다.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문화적 자각(cultural awareness)

문화적 자각은 커뮤니케이션의 기초이며 우리 자신에서 물러서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 신념과 지각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문화적 자각 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깊은 탐구 특히 깊은 자기검토를 포함한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적 가치, 신념을 탐구하기 위함으 로 자신의 자기에 대한 이해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왜 그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까?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볼까? 특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왜 행동할까? 등과 같은 질문으로 형성되는 우리의 세계관은 평생에 걸쳐 강화되며 문화충격을 낳을 수 있다.

다른 문화 출신의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문화적 자각은 중요하다. 사람들이 사태를 상이한 방식으로 보고 해석하며 평가한다. 우리에게 적합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적합하게 보일 수 있으며, 타방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의미를 사용할 때 오해가 발생한다. 이 같은 오해는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각이 결여되고 자신의 문화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때 주로 발생한다. 문화충격은 문화협력과는 반대는 되는 개념이다.

○ 문화적 자각의 수준

사람들이 문화적 자각을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단계 는 나의 방식이 유일한 방식이다(지협적 단계)라는 것이다. 자신의 길이 유 일하다고 생각하여, 문화적 차이의 영향을 무시한다. 둘째 단계는 다른 사 람의 방식을 알고 있으나, 나의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 서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행할 수 있으나 자신의 방식이 최선의 것이라 고 간주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를 문제의 원천으로 인지하며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다(자민족 중심주의 단계). 셋째 단계는 나의 방식과 다른 사람의 방식이란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 과 타인의 방식이 있다고 자각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최선의 방식을 선 택한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가 문제와 혜택을 낳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시너지 단계). 마지막 단계가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단계 에서는 넷째 단계와 더불어 상이한 문화출신의 사람들을 공유의미를 지닌 하나의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결합하게 한다.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여 측정상황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 는 새로운 규칙을 창조한다(참여적인 제3의 문화단계). 요약하면 문화적 자 각을 함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같지 않으며,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방식 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각각의 상황은 다르며 상이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111)

(2) 문화적 지식(cultural knowledge)

¹¹¹)www.culturosity.com/articles/whatisculturalawareness. htm.

상이한 문화집단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늘리는 것은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을 획득하는 데 본질적이다.

문화적 지식은 상이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세계관에 대한 건전한 교육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각양각색의 차원을 지닌다. 보기를 들면 고정관념, 인종사, 장애물과 사회학적인 문제, 건강, 신념 등이다. 중요한 것은 민족집단간 유사성뿐만 아니라 민족집단 안에서의 다양성도 인지하고 고정관념으로 이끌 수 있는 정보에 저항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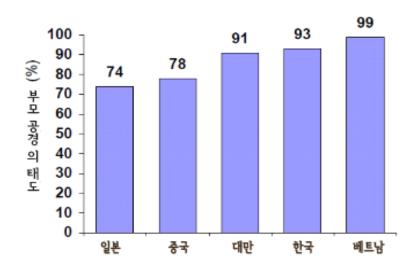
문화적 지식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의 렌즈로 세계를 볼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의 중심이다.

문화적 지식은 분명한 지식과 목시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분명한 지식은 글로 쓸 수 있으며 서적, 보고서, 자료 등에서 얻을 수 있다. 분명한 지식을 얻기 위해 면대면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이전하기 용이하다. 묵시적 지식은 표현하거나 기술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지식은 대부분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으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이 지식을 전달하기 어렵다. 이는 대화와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에 매우 중요하므로, 각개인은 문화적 지식을 공유하고 추구해야 한다.

(3) 문화적 기술(cultural skill)

문화적 평가,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문화 해석 그리고 적합한 간섭(개입)은 획득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된다. 문화적 기술은 적합한 문화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식을 적용하고 문화에 기반한 실질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가 깊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근무하는 인디언이 고가의 최신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회사여사원에게 자기 차를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는 너무 홍이 넘쳐 그의 차를 회사동료 모두에게 보여주려고할 정도였다. 그가 새 차를 산 기쁨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차를 몰아보라고 계속 종용하자, 그녀는 성희롱이라고 불평하였다. 이 직원의 태도는 궁정적인 것이나, 그의 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되었다. 112) 문화적 기술은 다른 문화의 존중에 있다.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나 타인의 어머니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모든 개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권리가 있으나다른 어머니를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비슷하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와 문화를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체와 문화를 미워하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을 발전시킴으로써 문화기술을 구사할수 있다.



[그림 V-2] 부모공경의 태도

¹¹²)http://www.articlesbase.com/networking-articles/how-to-develop-multicultural-skills-3918 12.html#ixzz12FN547Qt

(4) 문화적 조우(遭遇, cultural encounter)

문화적 조우의 보기는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문화가 베트남문화와 조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생각하는 것도 문화적 조우의 예가 된다.

문화적 조우란 이문화간 상호작용에 직접 참여함을 포함한다. 문화집단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개량하며 수정하고,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종집단내의 변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문화적 조우는 개인 간에 이루어지며 그 특징은 항상 다른 문화에 대한 존경과 개방성이 되어야만 한다. 문화적 조우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겸손하고 현명하고 따뜻하게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조우하는 문화적 집단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이며 환경적인 요소, 언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문화적 음식관 행, 공통적인 건강문제, 종교적 행동과 신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상이한 문화관행을 학습하는 전략으로는 미디어 탐구, 문화적 조우 마련, 공 동체성원과의 만남을 포함할 수 있다.

(5)문화적 욕망(cultural desire)

문화적 욕망은 정신적인 구성요소이며 '문화적으로 자각하고 문화적으로 박식하기를 원하며 문화적으로 능숙하여 문화적 조우를 추구하는 가정에 참 여하기를 원하는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이 같은 과정에 참여해야만 한다는 감정과는 대비된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며, 나약한 욕망이 나약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힐의 견해가 이를 잘 보여준다.113)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욕망과 겸손이 바탕을 이룬다. 캠피나 바코드는114) 겸손이란 자

¹¹³⁾ Napoleon Hill, Cyber Nation International Inc, 1999.

¹¹⁴⁾ J. Campinha-Bacote,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n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5(9), 2007, pp. 27-33.

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3) 문화적 감수성 발달 모델(DMIS)

(1) 문화적 감수성

문화적 감수성이란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이 존재하며 가치,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115) 다시 말해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적 차이와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즉 더 나은가 혹은 나쁜가 혹은 옳고 그름을 문화적 가치에 부여하는 않는 것이다.116) 문화적 감수성의 요소로는 첫째, 자신의 문화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기며 둘째, 다양성을 소중히 간주하며, 셋째, 문화적 다양성이 개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체 참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신의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을 다른 문화규범과 양립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의지, 넷째 다른 문화의 전통과 특징을 배우려는 의지를 들 수 있다. 문화적 감수성이란 결국 상이한 문화의 학습과 수용에 대한 개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적 감수성은 문화와 행동은 상대적이며 이문화간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117)

(2) 문화적 감수성 발달모델

(The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DMIS)

베넷(Bennet)은 문화간 발달의 복합적 모델(DMIS)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개념화하고 있다. 여섯 단계는 차이의 부인에서 차이의 통합에 이르는 이론 상의 연속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118)

¹¹⁵⁾ Y. Mavropoulos, Welcome to our slide show on families and cultural sensitivity, Retrieved July 17, 2008 from University of Vermont, PRLC: Stattford, Bowman, Eking, Hanna & Lopoes_DeFede 1997.

¹¹⁶⁾ National Maternal and Child Health Center on Cultural Competency, 1997.

¹¹⁷⁾ Robert T. Morgan, Philip Robert Harris, Sarah Virgin,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Global Leadership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5.

○ 1단계 : 차이의 부인

이 단계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자비로운 무시, 무관심, 무지 등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순진한 관찰 및 피상적인 관용 의 언급을 특징으로 지닌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환경 에서 성장하였고 자신의 문화집단 외부의 사람과는 제한적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두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첫째가 고립이다. 이는 삶의 상황 때문에 다른 문화집단으로 부터의 의도하지 않은 고립을 뜻한다. 둘째는 분리이다. 이는 고립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다른 문화집단으로부터의 의도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 2단계 : 차이에 대한 방어(Defense against difference)

이 단계의 특징은 차이에 대한 인정과 부정적 평가이다. 방어하는 사람은 차이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끼며 자신의 세계관을 보호함으로써 반응한다. 이원적인 '우리- 그들'이란 사고와 공개적이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이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세 차원이 있는 데, 첫째, 우월성(superiority)이다. 자신의 집단의 미덕을 다른 모든 집단의 것과 비교하며 자신의 집단의 긍정적양상을 과장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을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훼손(denigration)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열등하게 평가하여 다른 집단을 기술하는 데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다른 집단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적용한다. 이는 부정적인 외집단 평가라고 할 수있다. 셋째 반전(reversal, 反轉)이다. 이는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보면서 자신의 문화집단에서 소외된 감정으로 구성된다. 즉 긍정적인 외집단 평가와 결합된 부정적 내집단 평가이다.

¹¹⁸⁾ DMIS는 R. Michael Paige, Melody Jacobs-Cassuto, Yelena A. Yershova, Joan DeJageghere, Asses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ammer and Bennett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2003, pp. 467-486을 요약한 것임.

○ 3단계 : 차이의 극소화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문화차이를 인정하나 근본적으로 인간은 동일하다는 관점을 고수한다.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유사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3단계는 두 부분으로 세분될 수 있는데, 첫째 육체적 보편주의이다. 이는 생리적 유사성을 중시하면서 모든 인간이 같은 필요를 지닌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둘째 초월적 보편주의이다. 이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다른 중요한 공통성 때문에 사람들이 유사하다는 가정을 제시한다. 보기를 들면 사람들이 외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생각이다.

○ 4단계 : 차이의 수용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올바르게 인식한다. 행동과 가치에서 문화의 차이는 정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된다. 차이를 자신의 문화집단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 맥락에서만 검토한다. 수용의 지도 원칙은 문화적 상대주의이다. 한 문화가 내재적으로 다른문화보다 보다 낫거나, 나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단계도 둘로 세분할 수있다. 첫째 행동적 상대주의이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문화집단에 걸쳐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행동이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동의 패턴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패턴은 타당하다. 하지만 행동의 차이 수용은 개별적 차이에 대하여 꼭 안락감을 느낀다는 뜻은 아니다. 문화적 차이는 결함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5단계 : 차이에 적응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상상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이들은 자신의 정신적 관점을 내부자의관점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을 내릴 때 대안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이들은 다른 문화출신의 사람들과 효율적으로 커뮤니

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적응의 단계도 두 차원이 있는 데 감정이입(empathy)과 다원주의(pluralism)이다. 감정이입이란 대안적인 문화적 세계관으로 관점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며, 다원주의는 둘 이상의 완전한세계관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 6단계 : 차이의 통합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둘 이상의 완전한 세계관을 자신의 세계관에 통합한다. 이들의 정체성은 자신이 일부인 문화를 초월하며, 자신을 '진행중(in process)'의 사람으로 본다. 이들은 자신을 문화의 주변부(the margin of cultures)에 있는 사람으로 보며 문화전이의 촉진자로 간주한다. 통합단계도두 단계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맥락적인 평가(contextual evaluation)이다. 이는 일정 상황을 평가하는 데 상이한 문화적 준거 틀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구성적인 주변성(境界性, 周邊性, constructive marginality)이다. 이것은 주로 하나의 문화에 근거하지 않은 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단계는 높은 수준의 분화와 통합을 성취할 수 있는 세부 단계이다. 이 세부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간 구성적인 접촉을 촉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주변적 준거집단(a marginal references grou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의 단계에 있는 개인은 다른 문화의 관념과 가치를 자신의 사고방식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다문화적 관점을 획득하고, 제3의 문화(third cultures)도획득한다고 할 수 있다. 우심은119) 제3의 문화란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회혹은 자신의 부문을 서로 연결하는 데 개입 참여하는 둘 이사의 사회성원들이 물려받고 창조하여 학습하고 공유하는 문화패턴이라고 한다.

¹¹⁹⁾ J. USeem, The study of cultures. Studies of third cultures: A continuing series, no. 6 (pp.1-27). East Lansin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in Educ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1971. p. 14

나. 다문화인(multicultural man)

위에서 검토한 다문화 능력 모델은 결국 다양한 문화에 걸쳐 일하기에 특별히 적합한 자의식을 지닌 인간 즉 다문화인을120) 지향한다. 다문화인은 본질적 정체성 측면에서는 자신의 것과 다른 삶의 패턴을 포용하며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양한 현실에 대처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이다. 또한 이문화간 접촉에서 촉진자 혹은 촉매자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게 하는 속성과 특성을 구체화하는 사람이다. 121)

다시 말하면 다문화인은 다른 문화가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학습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이문화간 사고방식(an intercultural mindset)을 획득하며, 이는 둘 이상의 문화지분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다중의 준거틀에의거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다문화인은 다른 문화의 관점에 자신의 것을 이입하여 자신의 문화의 렌즈로 세계를 보는 경우보다 더 객관적인 관점을 지니며, 세계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즉 엄격한 자신이 경계안에 구속되지 않으면서 영토적 경계를 넘어서 제3지대(a third area)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잡종성(hybridity)이라고 칭하며, 바바(Bhabha)는122) 제3의 공간(a third space)을 이민자가 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3의 공간이란 지배문화와이민자 문화가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잡종화되는 것이다.

¹²⁰⁾ P. S. Adler, Beyond Cultural Identity: Reflection upon Cultural and Muliticultural Man, Topics in Culture Learning, 2, 1974, pp. 23-41.In R.W.Brislin(Ed.), Topics in culture learning: Concepts, applications, and research ,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7

¹²¹⁾ P. S. Adler, Adler, Beyond cultural identity: Reflections upon cultural and multicultural man. In R. W. Brislin (Ed.) 1977, p. 38.

¹²²⁾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 R. J. C. Young,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Routledge, 1995.

다.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 자문화중심주의를 넘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제시된 공식적인 정책가운데 하나가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정책이다. 사전적정의에 따르면 정책은 사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신중 혹은 지혜, 구체적 이익에 근거한 관리 혹은 절차, 대안들 가운데 선택한 행동의 확고한 경로 혹은 방법, 특히 정부단체의 일반적 목표와 수용가능한 절차를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전반적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123) 정책을 정부차원에서 보면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주는 원칙(가치, 이익과 자원)이다.

좋은 정책은 공적 가치와 질서를 창조하며, 정책결정과 실행은 개인, 집단,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정책을 수정하는 데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달성할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책변동으로 해결할 문제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정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말이다. 정책은 사회의 필요와 가치를 표출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이 같은 정책은 정부 밖의 집단으로부터의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형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갈등과 폭력을 최소화하고 만인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민족적 다양성과 다문화사회를 관리하는 주요한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은 좋은 정책이며 긍정적 결과를 낳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은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¹²³⁾ Merriam-Webster Dictionary.

"정부가 정책영역 안에서의 행위자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정책영역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다문화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특정 분야에서의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관용성은 교육되어진 의식도 아니고 단지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적 관용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차원이 아닌 아직까지는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 선의의 표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이나 생활습관을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유럽의 정서보다는 관대한 반면 이주자 송환정책에 있어서는 유럽연합(EU)의 기준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태도는 다문화적 수용력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사회가 초래할 수있는 경제적 차원의 '인지된 위협'이나 고용기회를 둘러싼 '현실적 위협이'가시화될 경우 일반적 선의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온정주의적 다문화정책'도 이러한논리와 일맥상통한다."124)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공적인 가치와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 거와 목적이 있어야만 한다. 또한 해결해야할 다문화적 문제의 정립, 정책의 결과평가, 정부 밖의 집단과 개인으로부터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에서는 분명한 근거와 목적을 지적하기 어렵다. 소수민족을 추상적이고 감상적으로 배려하고 도와야한다는 감정은 다문화정책의 기

¹²⁴⁾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www.nurimedia.co.kr. 2008-01-27. pp.909-928. p. 917.

초가 될 수 없다. 이 같은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은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정책의 내용과 범위가 비슷하다.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모델은 명백하지 않거나,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종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기 보다는 소수민족에게 문화동화 모델을 적용하려는 정책도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문화중심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이문화 대처이해능력의 부족이다.

자문화중심주의는 다문화정책의 목적과는 상반된 것이며, 다문화정책의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다문화인과는 거리가 먼 태도이며, 문화적 감수성 발달모델의 여섯 단계에서 보면 차이의 부인과 차이의 방어 단계에 지나지 않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s, 1990-1992, 1995-1996)에 따르면 한국 인의 53%가 외국인과 함께 이웃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인도 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 같은 한국인의 태도는 소수민족에 대한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 005 세계가치관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조사되었다. 외국인을얼마나 신뢰합니까란 질문에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1.7%였으며, 이는 중국(1.4%), 모로코(1.9%), 페루(1.1%)와 비슷한 수준이다.125)

이 같은 한국의 자문화중심주의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아래와 같은 언급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정을 모른 것 같아요. 무엇을 주제로 해도 예를 들어 음식을 주제로 해도 결국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 뭐, 이런 식으로

¹²⁵⁾ WVS2005_codebook_v20090415.

가요, 그건 좋은데 다른 것도 인정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항상 1등을 지향하는 느낌이에요. 여러 가치관이 있는데 최고라는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국민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촌에 다문화적 문제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필리핀에 데려가서 필리핀 며느리 등은 이런 곳에 산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하겠죠. 자기 딴에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인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과연 잘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필리핀 말을 배우게 한다던가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126)

이 같은 사태는 이문화 대처이해능력이 결핍에서 일어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민족이든 소수민족이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이문화 대처이해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능력은 자신의 이해의 한계를 느끼면서 문화의 겸손을 지향한다. 따라 이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다문화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형되고 있는 것에 비해, 다문화인 즉 이문화 대처이해능력을 지닌 사람의 수는 적다.

다문화과정에로의 참여를 통한 이문화 대처 이해 능력은 21세기 한국의 성공과 발전에 중요하다. 다문화는 우리의 사회의 생동력, 힘과 유지에 본질적이며, 우리가 생존하고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이문화 대처이해능력을 개인, 가족, 사회 차원에서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이 단순히 소수민족과 정부(혹은 특정 집단) 양자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소수민족과 정부 밖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실행 수정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성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¹²⁶⁾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엮음, 한국사회의 소수자들(서울: 경진, 2009, p. 181.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우리사회의 다문화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우리 다문화정책의 거시적 목표의 명료화, 단기적 목적과 장기적 목적 등에 근거해야 한다. 협소한 영역에 초점을 둔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개인은 다문화정책결정자의 능력 즉 자신의 문화적인 가치와 편견을 자각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녀 여기에 근거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개입전략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은 이문화간 문화적유사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경함으로써 문화를 넘어서 개인, 조직, 집단, 체계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 이문화 이해대처능력의 획득은 동태적이고 계속적이며 발전적 과정이다. 이는 장기적인 헌신을 필요로 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취될 수 있다.

라. 다문화 민주주의와 다문화정책

한국사회는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점점 변화하고 있으며 21세기 민주주의국가로 지속된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민주주의국가(multicultural democracies)가 되어야만 한다. 다문화 민주주의는 현존의 민주주의 개념 을 넘어서 사회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양한 집단 - 물론 소수민족과 다수민족 양자를 포함한 - 이 민주주의에 평 등하게 참여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127)

오늘날 한국사회도 민족적 다양성을 제외하고는 사회 정치 문화제도뿐만 아니라 국가도 세울 수 있다고 상상하기 어렵다. 다문화 민주주의는 한국사회에살고 있는 만인을 위한 가치와 위엄은 더 나은 인간적인 사회를 형성할 수있고 이를 위하여 시민에게 노력하고 분투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¹²⁷⁾ Theresa Perey & James W. Fasner ed., Freedom's Plow: teaching in the multi-classrooom, New York: Routledge, 1993.

다문화민주주의를 검토하면서 (참여로의) 길이 얼마나 넓은가란 본질적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128) 다문화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목적지라기 보다는 도정(道程, a path)이라는 관념을 강조한다. 즉 다문화 민주주의는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함께 사는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속적이고 창조적인투쟁으로 볼 수 있다. 현존의 민주주의는 21세기 다문화민주주의 모델이 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듀이의129) '창조적 민주주의(creative democracy)'에서와 같이,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한다. 또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 더 큰 시민공동체 즉 민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집단들을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은 다른 이가 행하는 바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비록 서로 직접 연계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은 동료시민의 해동에 무관심할 수 없는데 다문화민주주의는 더 큰 선을 위한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도정이기 때문이다. 다문화민주주의로의 길은 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민주주의로의 길 위에서 우리는 함께 협력하기 위해 서로 고무할 수 있어야 한다.130)

다문화 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성되고 실행되며 수정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시민은 개인의 차이, 집단의 차이 그리고 정치공동체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확대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다. 물론 만인

¹²⁸⁾ Parker, Curriculum for Democracy, In R. Soder ed., Democracy, Education, and the School, pp. 182-210.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¹²⁹⁾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Kessinger Pub Co., 2010.

¹³⁰⁾ Anand R. Marri, Multicultural Democracy: toward a better democracy, International Education, 2003, 14:3, pp. 263-277.

을 위한 개인의 자유, 평등, 질서, 인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문화적 시민을 추구해야 하며, 집단권리는 자유주의의 본질적 부분이며, 집단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수용될 수 있으며 자유와 평등에 필수적 이라고 하겠다. 개인의 자유는 도덕적 결정으로서 강제로부터의 자유, 개인 이 행복추구권을 포함하고 있다.

이질적이고 분화된 사회에서 다문화민주주의는 항상 불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혹은 저런 방식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문화대처 이해 능력을 발전시키고 다문화 민주주의로의 도정(道程)을 함께 걷는데 협력함으로써, 모든 다문화 사회 성원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할수 있어야 한다.

■ 정책제언

1. 다문화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 좋은 정책

- 좋은 정책은 공적 가치와 질서를 창조하며, 정책결정과 실행은 개인, 집단, 공동체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정책은 분명한 근거와 목적이 있어야 함.
- 정책은 사회의 필요와 가치를 표출하고 구체화해야 하며, 이 같은 정책은 정부 밖의 집단으로부터의 협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음.
- 다문화정책도 이 같은 정책에 포함.

○ 한국 다문화정책의 한계

-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적 관용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약자로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일반적 선의의 표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음.

○ 다문화정책의 추진성과는 불확실

2. 정책제언 사유

- O 다문화정책은 다문화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다문화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한 사회가 지닌 다문화 능력에 좌우됨.
- O 다문화 능력이 없는 사회는 다문화 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합한 개 입전략을 제공할 수 없고, 다문화사회에 관한 진단과 처방도 제시하 기 어려움.
- O 다문화정책의 장애물은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부족과 자민족 중심 주의로 볼 수 있음.
 - 세계가치관 조사(1990~1992, 1995-1996) 결과: 한국 자문화중심주 의가 강함
 -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의 부족
- O 이문화 이해 대처능력이 부족한 환경에서서는 다문화정책이 성공 할 가능성은 희박
 - 협소한 영역에 초점을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사회의 본질에서 벗어 날 수 있음

3. 정책제언

- O 이문화 이해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우선 되어야 함
 - 다문화사회 성원의 다문화주의의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야 함

- O 다문화정책은 아래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함
 - 우리사회의 다문화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 다문화정책의 거시적 목표의 명료화
 - 단기적 목적과 장기적 목적의 조화
 - 소수민족이든 다수민족이든 "다문화인(multicultural man)"의 사고방식을 지닐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추진해야함. 이 정책의 대상을 이주자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정책결정자, 다문화가족 관련자, 다문화가족사업 종사자, 학교, 공동체 등이 포함되어야함.
- O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은 방임주의/ 개입주의 양쪽 모두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감정적·온정적·인도주의적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재고되어야 함.
- O 다문화 민주주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문화정책에 접근할 필요 성도 있음.
 - 다문화시민의식의 배양
 -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다문화 민주주의제도

참 고 문 헌

김현재, (2007). 베트남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제52집, 2007년 2월.

문화콘텐츠 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 연구사업단 엮음, 2009. 한국사회의 소수자들, 서울: 경진.

박대식, 농촌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정책개선방향, 특집/다문화사회의 전개와 국 토정책과제, pp. 31-38.

피츠제랄드 지음, (1982). 중국의 세계관, 서울: 민족문화사.

홍기원, 2008.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www.nurimedia.co.kr.

Abdallah-Pretceille, M. & Porcher, L., 1996. Education et communication interculturell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Adler, P. S., 1974. Beyond Cultural Identity: Reflection upon Cultural and Muliticultural Man, Topics in Culture Learning, 2.

Allport, G.,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Bannister, Robert C. ed. On Liberty, Society, and Politics: The Essential Essays of William Graham Sumner, Indianapolis, Indiana: Liberty Press, 1992.

Berlin, Isiah, 1998. Pluralism, New York Review of Books, Vol. XLV, Number 8.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Bhabha, Homi K., 1994.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Bochner Stephen, ed., 1981. The Meditating Person, Boston: G. K. Hall and Co. Bogardus. Emory S., 1925. "Social Distance and Its Origin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Bordeau, Jamie, 2010. Xenophobia: the violence of fear and hate, New York: the Rosen Publishing Group.

Brislin R. W. (Ed.), 1977. Topics in culturel earning: Concepts, applications, and research,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Brophy, 1946. the Luxury of Anti_Negro Prejudice, Public Opinion Quarterly, 9.

Bryjak & Soroka, 1994. Sociology, cultural diversity in a changing world, Boston: Allyn and Bacon.

Brym Robert J. & Lie, John, 2003. Sociology, , Toronto, Wadsworth.

Campinha-Bacote, J., 2007. Becoming Culturally Competent in Ethnic Psychopharmac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45(9).

Caprio, Mark E., 2009. Japanses Assimilation Policies in Colonial Korea 1910-1945, Seattle, Washington University Press.

Castagno, Agnelina E., 2009. Making Sen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 Synthesis of the Various Typologies Found in the Literarture Multicultural Perspectives, 11(3).

Coltrane, Scott Collins Randall, 2001.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Belmont: Wadsworth.

Cross, Terry B. & Dennis Bazron, K., Isaacs M., 1989. Towards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Volume 1,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March.

Cuellar I. & Paniagua, F. A., 2000. Handbook of multicultural mental health: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iverse populations. San Diego: Academic Press.

D'Andrea M. & Daniels, J., 1991. Exploring the different level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training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1).

Dana, Richard H. & Allen, James R., 2008.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in a Global Society, New York, Springer.

Dewey, John, 2010. Democracy and Education, Kessinger Pub Co.

Dovidio John F. Glick, Peter Samuel, Rudman Laurie A. 2005. On the Nature of Prejudice: fifty years after Allport, Malden, Blackwell Publishing.

Ellis, William N., and Ellis, Margaret McMahon, 1989. "Cultures in Transition: What the West Can Learn from Developing Countries," March-April, Futurist.

Ernst, Robert, 1994. Immigrant Life in New York City, 1825-1863, New York: the Syracuse University Press.

Federsen, Paul ed., 1999. Multiculturalism as a fourth force, New York: Taylor & Francis.

Fiddian, Robin W., 2000. Postcolonial Perspective On the Culutresof Latin America and Lustophone Africa, Liverpool: Liverpool University Press.

Furnham, A. & Bochner, S., 1986. Culture shock. London, England: Methuen.

Garighead, W. Edward & Nemoroff, Chareles B., 2002. The Corsini Encylopaedia of Psychology and Behavior Science .pp. 984-985,

Gibson, M. A., 1976. "Approaches to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Some concepts and assumptions", *Anthropology and Education Quarterly*, 7(4). Challenges, Evaluation 16(2).

Hardy, Henry, 2000. Isaiah Berlin's Key Idea, Romulus , the magazine of Wolfson College, Oxford, NS 4 No 1, Trinity.

Hill, Napoleon, 1999. Cyber Nation International Inc.

Hirchman, Charles, 1983. America's Melting Pot Reconsidered, Ann. Rev, Sociol. 9.

Hjerm, Mikael, 2005. What the Future May Bring, Xenophobia among Swedish Adolescents, Acta Socologica December, vol 48(4); 292-307.

Hudson, R. 1996. Socioli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mrozik, Adam & Nocella, Luisa, 1998. The Sociology of Social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Jiobu, Robert M., 1988. Ethnicity and Assimil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Kallen, Jiobu Rober M., 1988. Ethnicity and Assimil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Kincheloe, J. L. & Steinberg, S. R. , 1997. Changing multiculturalism. Philadelphia, PA: Open University Press.

Koser, Khalid, 2007. International Migra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ramsch, Claire, 2003. Language and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rymlicka, Will K.,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Clarendon Press.

Kymlicka,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ymlicka, Will & Banting, Keith G., 2006.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i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ymlicka, Will, K.,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cionis, Clarke, Gerber, 1994. Sociology, Ontario: Prentice Hall Inc.

Macionis, John J., 1994. Sociology, New York: Prentice Hall.

Magala, Stawomir, 2005. Cross Cultural Competence, New York: Routledge.

Marri, Anand R., 2003. Multicultural Democracy: toward a better democracy, International Education, 2003, 14:3.

Mavropoulos, Y., 2008. Welcome to our slide show on families and cultural sensitivity, Retrieved July 17. from University of Vermont, 1997. PRLC: Stattford, Bowman, Eking, Hanna & Lopoes_DeFede.

Mcfadden, John & Moore III, James L. 2001. Intercultural marriage and intimacy; Beyond the continental divid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3, pp. 261-268.

Modood, Tariq, 2007. Multiculturalism: a civic idea, Cambridge: Polity Press.

Mooney, Knox & Schacht, 2002. Understanding Social Problem, Belmont, Wadsworth.

Mooney, Knox and Schacht, 2002.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Belmont, Wadsworth.

Mooney, Knox, Schacht, 2002.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Belmont: Wadsworth.

Morgan, Robert T. & Harris, Philip Robert, Virgin, Sarah, 2007. Managing Cultural Differences: Global Leadership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ewman, William M., 1973. American Pluralism, New York: Harper and Row.

Number of refugees returning home drops to lowest in 20 years - UN report, 2010. 2010년 6월 15일.

OECD, 201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Ortiz, Fernando, 1995. Cuban Counterpoint: Tobacco and Suga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Trans. Harriet de Onís. (Original Spanish edition published in 1940. Original translation by Onìs published in 1947, New York: Knopf.)

Paige, R. Michael, Melody Jacobs-Cassuto, Yershova, Yelena A., DeJageghere, Joan 2003. Assess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ammer and Bennett Intercultural Development Invento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7.

Paquet, Gilles, 1999. Governance Through Social Learning, Ottawa: Universitiy of Ottawa.

Parekh, Bhikhu,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Basingstoke, Macmillan.

Parekh, Bhikhu, 2006. Dialogue between cultures in Ramon Maiz Suarez, Frerran

Requejo Coll, Democracy,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New York: Frank Cass.

Parker, Curriculum for Democracy, In R. Soder ed., 1996. Democracy, Education, and the School, San Francisco: Jossey-Bass.

Perey, Theresa & Fasner, James W. ed., 1993. Freedom's Plow: teaching in the multi-classrooom, New York: Routledge.

Pettigrew, Thomas f., 1998. Intergroup contract theory, Annu. Rew. Psychol. 49.

Pratt, Mary Louise, 2007.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Prideaux, David, 2001. Cultural Identity and Representing Culture, Medical Education, vol 35. no. 3. pp.186-187.

Richmond, Anthony H., 1997. Multiculturalism and the Millenium: Global Perspective, Refugee, Vol. 15, No. 6.

Rosado, Caleb, 1997. Toward a Definition of Multiculturalism, 1997. www.rosado.net.

Rudmin, Floyd Webster, 2006. Debate in Science :The Case of Acculturation, University of Tromso, Norway, December.

Ryan, Kevin & Cooper, James M., 2007. Those Who Can, Teach, Boston, Wadsworth.

Salary difference between Ireland and Latvia has reduced by 25%, 2010/01/10, The Baltic Course.

Sherif, Muzafer 의, 1988. The Robbers Cave Experiment: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Middle Town: Weslyeyan University Press.

Spitta, S., 1995. Between Two Waters: Literary Transculturation in Latin America, Houston: Rice University Press.

Stark, Rodney, 2004. Sociology, Belmont: Wadsworth.

Sullivan, Thomas J., 2006. Introduction to Social Problems, Boston: Pearson.

Sullivan, Thomas J., Sociology, 2006. New York: Pearson.

Tasker, Peter, 1988. The Japanese: a major exploration of modern Japan, New York, Penguin Books.

The Office of Minority Health, USA and the National Center for Cultur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USA, 'What is Cultural Competency',

Throssell, R. P., 1982.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in S. Bochner ed., the meditating person, Camabridge: Schenkman books.

Tischler, Henry L. 2004. Introduction to Sociology, Belmont: Thompson & Wadsworth.

Tseng, 1997. Overview: culture and psychopathology, in Culture and Psychopathology: A Guide to Clinical Assessment. Edited by Streltzer, WS Tseng, J. 1997. New York, Brunner/Mazel, pp 1 - 27.

Uhlmann, Wendy R. & Schuette, Jane L., Yashar, Beverly ed., 2009. A Guide to Genetic Couselling,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UNDESA, 2004. World Economic and Social Servery: International Migration, New York: UN.

US Supreme Court,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

Wage Gaps between Racial and Ethnic Groups are not diminishing, 2003. Research Brief, Public Policy of Institute of California, May 2003 issue no. 70.

World Bank,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Young, R. J. C., 1995.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Routledge.

[웹사이트]

www.culturosity.com/articles/whatisculturalawareness. htm. http://www.articlesbase.com/networking-articles/how-to-develop-multicult ural-skills-391812.html#ixzz12FN547Qt

| 정책연구 2010-3 | | | | | |
|-------------|---|--|--|--|--|
| | 다문화가족 정책연구 Ⅲ | | | | |
| 발 행 | 2010년 12월 31일 | | | | |
| 발행인 | 변 평 섭 | | | | |
|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다문화가족정책연구원 | | | | |
| 주 소 | 대전시 동구 자양동 155-3(300-718) 전화 : (042) 629-6570 팩스 : (042) 629-6574 http://www.kimch.or.kr | | | | |
| 인쇄처 | 해송(전화 : 042-637-3030~1) | | | | |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